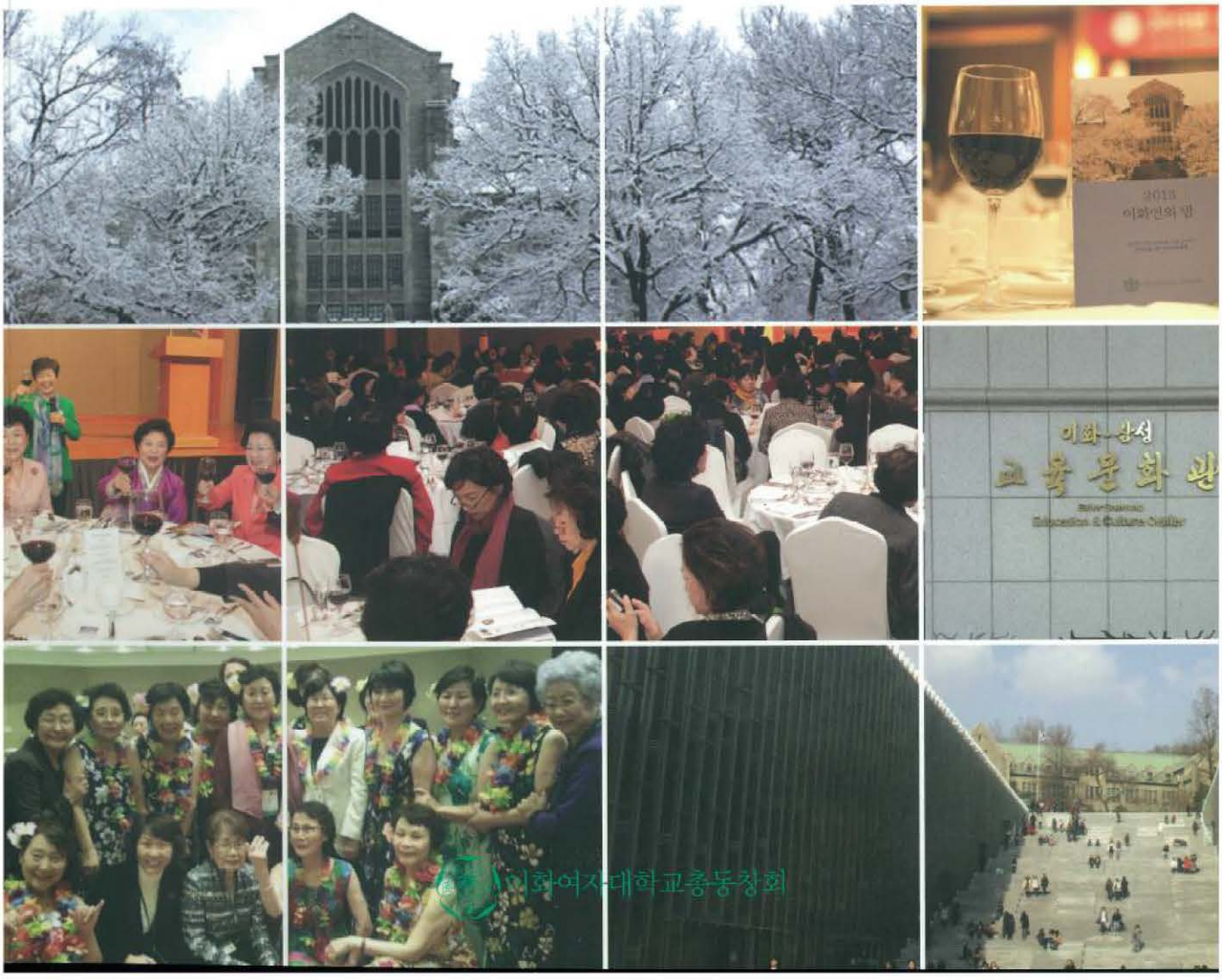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회보 2013년 겨울 제133호



2014년은 자랑스러운 '이화' 위해 '이화' 사랑 모으는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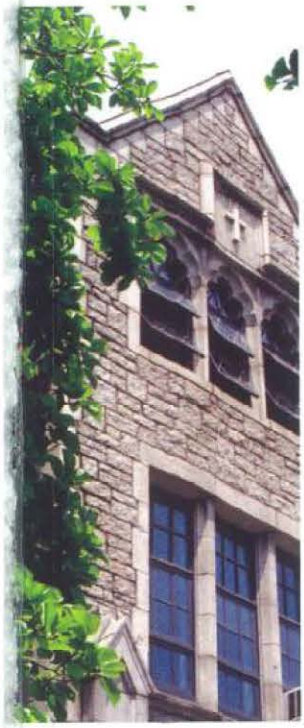
20만 동창 힘 모아 세계 최고 '이화' 만들자

이화여대 128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 20만 동창들의 가슴 속에는 누구나 모교에 대한 특별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다. 2013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총동창회는 '이화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30억 원 약정서와 함께 동창들의 '이화' 사랑을 모교에 전달하였다. 세계 최고의 '이화'를 향해 달려가는 모교에 보탬이 되고자 2014년 총동창회는 동창 한 분 한 분의 '이화사랑'을 모으기 위해 진력할 것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행정동에서 가진 '이사장 초청 후원이사 모임'

이화동창

2013년 겨울 제133호



02 · 겨울의 시 — 황새를 기다리며 | 임인진
03 · 총동창회장 신년사 — "내가 계획했어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 조종남
04 · '이화인의 밤' 행사 — 추억과 우정 나누며 감사기도로 한 해 마무리
09 · 특별대담 — 동창들 '이화사랑'으로 세계에 우뚝 서는 모교
14 · 기획 시리즈 — 노교수와 사랑하는 제자들 /영문과
18 · 기획 시리즈 — 소설가 김선주가 만난 이화 경영인 김정자 회장
22 · 자랑스런 이화동창 —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24 · 2014 이화 유망주 — 나은혜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예보팀장
26 · 잊지못할 연하장 — 문희 최청규 조종남
27 · 기획 르뽀 — 20만 동창들 꿈과 사랑 담은 이화 동창회관
30 · 총동창회 소식
34 · 문화탐방을 마치고 — 창덕궁 답사 | 유정희
35 ·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 공연팀 이음회
36 · —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신청서
38 · 선교부 소식 — 어머니 모교 찾은 선교사 자녀를 만나다 | 양지현
40 · 알아두면 유익해요 — 갱년기 생리 불순, 방심하면 큰 병 된다 | 정혜원
42 · 생활법률 필요해요 — 상속 제대로 받기 | 최지희
44 · 대학 소식
46 · 과 · 학부 소식
52 · 국내 · 해외지회 소식
58 · 모교 소식
62 · 동창 소식
65 · 후원이사회비납부자 명단
66 · 연회비 납부자 명단
73 · 축하 합니다 — 이영희 장상 이경자 추성인 김숙현
74 · 동창이 펴낸 새 책
75 · 이화동창 글짓기 대회

편집위원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 박경희(신방90)

2013년 겨울 제133호 비매품 | 발행 · 2014년 1월 15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 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문예바다(02-744-2208) | 디자인 · 박래후편집공방 www.raehoo.com· 02-742-9991
인쇄 · 독일인쇄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014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황새를 기다리며

임인진
국문58

저 높은 산맥에도는 바람 따라
야성의 숨결 곧추세워
힘차게 날아올 수는 없는가
어느 먼 하늘 밑
해맑은 빛과 향기 그윽한 곳
거기 푸니무 집을 짓고, 알 품어 새끼 치고
"가락가락" 부리 맞부딪치며 살아있다면
해 지고 달이 떠도
소나무 청정한 황새산
설화說話의 메아리 서리서리 가슴에 안고
오도카니 턱을 괴는데
그리움 눈물이슬 팽그르르 맺히는데
눈부신 비상飛翔
고고孤高한 그 자태로
이제 훨훨 날아올 수는 없는가
아름다운 한새여!

한새- 황새의 옛 이름

시집『친구여, 옥수수밭엘 가보았는가』동화집『배꽃마을 이야기』
동시화집『별이 내리는 집』『별하나 꽃핀하나』시와 수필『황새를 기다리며』
이화문학상, 한국아동문학창작상, 신사임당상 수상

총동창회장 신년사

"내가 계획했어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회장 조종남 | *의학 75*

2013년 3월에 16대 총동창회장직을 연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갑오년 새해 아침입니다.

나름대로 열성과 치열함을 안고 일심히 달려온 지난해를 돌아봅니다. '기둥만큼 바라는데 바늘만큼 이루어진다' 는 영국속담이 생각납니다. 처음 꿈은 컸다 하여도 결실이 그만큼 따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3월부터 시작했던 많은 행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그 중에서도 각 대학(원), 과, 지회 회장님들과의 간담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동창의 날 행사, 127주년 감사예배, 대바자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화인의 밤, 그리고 광주지회 방문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모든 연이어지는 행사들에 많은 동창님들이 기대 이상으로 참석해 주시고 이화사랑을 듬뿍 표시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모교에서 추진하는 'Global Ewha Hub' 협조의 차원에서 본동창회에서는 30억 원의 모금을 약정하였는데, 경기도 좋지 않고 개인적인 일, 각 과의 사정들이 있는데도 각별한 정성으로 모금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동창님들의 이화사랑에 깊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화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과 사랑이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졌는지, 서운한 말을 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사이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 그분을 위해, 이화를 위한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잠언서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는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 동창의 모든 일도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므로, 그리고 올해가 아닌 내년에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리라 믿는 것입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총동창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쳤을 때 동창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일일 것입니다.

소걸음 같이 아니 새해는 말 걸음 같이 뚜벅뚜벅 한걸음 늦더라도 걸어 나가며, 1년여 남은 임기를 열심히 마무리 지어 보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동창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오늘이 있기까지 같이해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2013 '이화인의 밤' 행사

추억과 우정 나누며 감사기도로 한 해 마무리

제 9회 '아름다운 이화인'상 수상자 김송자 대천애육원 원장 시상
모교에 '글로벌 여성교육 허브 기금' 30억 원 약정서 전달

2013년 11월 25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총동창회가 주관한 2013년도 '이화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기 위한 이 날 행사에는 각 대학(원), 학부, 과, 지회 동창 등 900여 명이 참석하여 우정과 덕담을 나누었다.

이번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3년 총동창회의 여러 행사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준 동창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청춘시절을 이화 동산에서 함께 보낸 동창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정과 덕담을 건네며 한 해를 감사히 마무리하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면서 '지난 3월 총회

1.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 2. 장명수 이사장의 건배 제의 3. 채수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이수자 공연
4. 모교 배일환 음대 교수의 연주

에서 대학원 졸업생 정회원 인준을 함으로써 좀더 폭넓은 동창회원을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였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총동창회 내 정보통신부 신설 기념으로 우리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들의 on line과 off line을 이용한 이화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젊은 동창들의 모교 방문 및 상호 소통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월 제2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가 열렸음을 보고하며 '오늘의 총동창회가 있기까지 사랑으로 헌신한 장의순, 주영희, 윤순희, 김순영 전 회장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모교에서 참석한, 정의숙 전 이사장, 장명수 이사장, 김선욱 총장, 장상 전 총장, 이배용 전 총장, 신인령 전 총장 등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는 말을 전했다.

이 날 조종남 회장은 김선욱 총장께 동창들이 모금한 모교발전기금 1억 원 이외에 모교 '글로벌 여성교육 허브 기금' 30억 원의 약정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약정서 전달을 계기로 총동창회는 기금 모금에 혼신의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 날 약정서를 전달받은 김선욱 총장은 동창들의 모교 사랑에 감사를 표하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세계 최고의 '이화' 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모교소식을 통해 글로빌 여성교육의 허브 기치를 내걸고 진행하고 있는 모교의 야심찬 6개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기금이 유용하게 쓰일 것임을 알리고 더불어 2017년 마곡 의료지구 건설로 앞으로 이화가 그곳 의료원을 중

심으로 새로운 날개를 달고 비상을 준비하게 될 것을 동창들께 알렸다.

이날의 하일라이트는 제 9회 '아름다운 이화인' 시상식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김송자(불어불문학 64) 대천애육원 원장은 시아버님인 고 전덕규 옹이 6.25 전쟁고아를 위해 설립한 대천애육원의 유지를 이어받아 20여년 봉직하였던 교육계를 떠나 결손 유아와 청소년들의 양육과 교육에 다시 20여년을 헌신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회복지가이다.

국내외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이화정신을 널리 펼치며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해 오시는 분을 격려하고 그 공을 기리는 '아름다운 이화인상' 에 꼭 맞는 김송자 동창의 이번 수상이 앞으로 더많은 '아름다운 이화인' 들을 탄생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날 '이화인의 밤' 행사는 모교 음대 교수인 배일환, 김은희 교수와 채수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이대 출강), 음대 동창인 이지은, 전혜민 씨 등이 출연하여 '작은 음악회' 를 특별하게 공연함으로써 참석한 동창들을 흥겹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선물로 행운권 추첨도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어 동창들 모두 푸짐한 선물 주머니를 받아가며 2014년 '이화인의 밤' 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였다.

제 9회 아름다운 이화인 김송자 대천애육원장(불문 64)

교육자의 꿈 사회복지가로 승화시킨 20여 년

김송자 대천애육원 원장은 20여 년을 결손가정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싹을 틔워 건강한 사회인으로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하고 더 나아가 각박한 우리 사회에 나눔과 베품, 섬김이라는 고귀한 실천을 보여주었다. 고등학교 교사로 헌신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회에서 외면받은 결손가정 미아 및 청소년들의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되고, 그들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학비문제로 인해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원아들을 위해 충청남도 최초로 시설아동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만들어 시설아동들도 대학에 갈 수 있음을 보여준 선구자이기도 하다.

포상/ 시설 아동 학력 증진 평가 우수- 보건복지부 장관(1995), 사회복지 모범 종사자-보령시장(1997), 대통령표창(2003), 전국 아동복지시설 평가 상위시설(충남1위, 전국5위)-보건복지부장관(2005), 국민포장 수상(2011)

제 9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 소감

이화 정신인 '큰사랑' 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김 송 자 (불어불문 64, 대천애육원 원장)

먼저 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를 감히 '아름다운 이화인상' 이란 이름으로 세워주신 우리 불어불문과 동창회와 총동창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60년대에 대학 다닐 때는 저희 불문과 학생들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사고방식 뿐 아니라 외양으로도 잡지 'Vogue' 를 뒤적이며 그 속의 모델들 흉내를 내는 등 다른 과 학생들보다 조금 튀는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교직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남매도 얻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성에서 호스돈 여고와 송도고보 등에 계셨고 서울에서는 용산고등학교에 재직하시다가 대천으로 피난을 오셨던 전직 교장이셨던 시아버님께 당시 보령군수의 가장 큰 고민인 6.25전쟁 고아들이 맡겨졌습니다. 아동문학을 하시고 교회 장로님이셨던 아버님께서는 그 고아들을 품에 안고 모래사장 위의 무릎기도로 고하고 구하는 사랑의 삶으로 헌신하시다가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의 제 삶은 서울에서 은총 속에서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샹송을 가르쳤고 집에서는 오직 남매의 교육에만 전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루 아침에 60여명의 고아들이 안겨졌습니다.

정말 두렸웠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저만 보면 저의 옷자락을 만지며 빤히쳐다보는 애잔한 눈망울을 대할 때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자, 그리고 발로 뛰자' 고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절대 '뒤돌아 보지 말고 앞만 보자' 고 다짐하며 이 아이들에게 올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그 마음은 이화여대 첫 입학식 대강당에서의 첫 채플 시간부터 4년 수업시간에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과 기독교문학시간에 계속 내야했던 리포트를 위해 성경공부를 구체적으로 했던 그 말씀들이 마음에 뿌리내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이화에서 배운 기독교정신과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또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가운데 저희 애육원은 62주년을 맞았고 이곳에서 자라나 사회로 나간 1,000여명의 아이들과 교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불문과 동기동창들이 20년 가까이 많은 도움을 주었어도 50년 동안 동기모임에 나간 것은는 2~3번 손 꼽을 정도입니다. 지희 남매도 하니님이 건강하게 잘 살도록 길러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애육원 후원자들 중에 1,2등을 사위와 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이화인'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이화에 대해 50년을 까맣게 잊고 있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버이로서의 작은 사랑을 넘어 이화의 정신인 큰 사랑으로 더 섬기고 나누라는 당부로 알고 나머지 삶을 더 열정으로 살겠습니다. 12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모교와 총동창회에 더욱 커다란 발전을 기원합니다.

행운선물 기증 목록

정의숙 전 이사장	30만원 백화점 상품권 1매
윤후정 명예총장	순금 행운의 열쇠 1점
장명수 이사장	50만원 백화점 상품권 1매
김선욱 총장	에스프레소 머신 1대
조종남 총동창회장	LG 트롬 드럼세탁기 1대
이순남 의무부총장	목동병원 패트검진권 1매
윤순희 총동창회 고문	삼성전자오븐 1대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LG 노트북 1대
박유나 총동창회 부회장	밍크목도리 1점
조경원 총동창회 부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유희숙 총동창회 감사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손종수 총동창회 감사	침구청소기 1대
김효신 총동창회 총무	전동칫솔세트 5점
한재욱 총동창회 서기	버버리울실크스카프 1점
황영남 총동창회 회계	핀란드산 도자기 "이딸라" 1점
박경임 총동창회 문화부장	유홍준의 " 명작순례" 책 20권
위성숙 총동창회 재정부장	고단위 종합영양제 세트 5점
계명선 총동창회 음악부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유영선 총동창회 홍보부장	제주도 왕복 항공권 2매
이혜앙 총동창회 지역부장	삼성 갤럭시노트3 핸드폰 1대
김미순 총동창회 선교부장	알파카 머플러 10점
성시열 총동창회 정보통신부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김혜원 인문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2매, 피움클레 피부미용마사지권 1매
김이경 사회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조혜영 공과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5매
방명혜 음악대학 동창회장	알파카 머플러 10점
남은숙 조형대학 동창회장	광주요 모던라인 한식기 세트 1점
장혜란 체육대학 동창회장	소다스트림 탄산수 제조기 1대
문미란 법과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임혜란 경영대학 동창회장	알파카 머플러 10점
김진향 간호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정용희 약학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채문경 대학원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양수화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MCM 핸드백 1점

김은자 국문과 동창	모뉴엘 로봇청소기 1대
이주영 영문과 동창	10만원 GS 상품권 20매
한경희 불문과 동창	한경희 생활가전 제품 5점
이숙진 동양화과 동창	스카프 1점
강태화 서양화과 동창	브로치 2점
오수경 서양화과 동창	수공예 브로찌 1점
김옥광 섬예과 동창	브로치 1점
조경은 섬예과 동창	브로치 1점
김영은 도예과 동창	도자기 접시 1점
김혜련 도예과 동창	도자기 장신구 1점
서혜수 도예과 동창	브로치 1점
이지은 도예과 동창	도자기 장신구 2점
이혜정 도예과 동창	브로치 2점
최윤희 도예과 동창	십자가 도자기 5점
손성혜 교육과 동창	손성혜 한복상품권 1매
오주원 교육과 동창	루이까또즈 핸드백 2점
최금숙 법학과 동창	베트남 면실크머플러 20점
이재숙 의학과 동창	정관장 인삼제품 2점
이혜성 의학과 동창	와인 100병
이영숙 약학과 동창	경주 코모도호텔 2인1박 숙박권 3매
곽영미 경영대학원 동창	버츠비(Burt'sbees)화장품 세트30점, 쥴리피(Juliquel)화장품세트 20점
홍라희 ALPS 7기 동창	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1대
동아쏘시오홀딩스	박카스 1,000병
롯데백화점	10만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매
롯데호텔	롯데호텔 2인 부페식사권 5매
명인제약주식회사	테팔 후드믹서기 20점
보령제약	프로폴리스 비누 1,000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목동병원 건강검진권 3매
일동제약	루왁커피선물세트 1점
(주)샘표식품	맛있는 저염간장, 남한산성 누룽지 닭백숙 재료 각 1,000점
(주)LG생활건강	뽀아쓰는 자연퐁 1,000점
한국화이자제약	챕스틱 2,000점
총동창회	수첩, 달력, 가방 각 900점

모교 후원금 모금을 위한 특별대담

동창들 '이화사랑'으로 세계에 우뚝 서는 우리 모교

지금 '이화'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대학을 넘어 세계와 함께 하는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교와 총동창회가 뜻을 함께 하여 기금 마련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작년 11월 25일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총동창회 조종남 회장은 김선욱 총장께 모교 글로벌여성교육허브기금 30억 원의 약정서를 전달하였다. 이를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될 모금과 향후 학교 발전에 대해 지난해 12월 10일 김선욱 총장과 조종남 총동창회장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이 바로 20만 동창들이 모교 '이화'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다시 한 번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다. (편집자 주)

정리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경은(영문 79, 이화동창 편집위원)
배석 양옥경(영문 82, 대외협력처장,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김선욱 총장

●

이번에 총동창회가 후원하시는 글로벌 여성교육허브기금은 학교의 비전과 관계됩니다.

회장 총동창회가 지난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총장님께 모교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30억 원의 약정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약정서 전달을 계기로 우리 총동창회는 기금 모금에 혼신의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물론 각 대학(원), 학과와 전공, 지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창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총장님께서 이번 후원금 모금이 얼마나 우리 '이화' 에 큰 힘이 되는지 정확히 짚어 주시면 이번 모금의 중요성을 동창들께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글로벌여성교육허브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장 먼저 총동창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여성교육허브기금에 총동창회가 30억 원을 약정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의 기금역사를 보면 학교가 기금을 조성할 때마다 동창들과 교직원의 기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후 동창들의 그동안의 지원과 후원에 보답하기 위해 동창들을 위한 감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총동창회가 후원하시는 글로벌여성교육허브기금은 학교의 비전과 관계됩니다. 이화는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 비전아래 6개 핵심전략(학부교육 혁신, 연구 산학의 역량강화, 국제화, 사회적 책임 강화, 기반 시스템 선진화, 지식정보화 네트워킹)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교육혁신과 관련된 것으로 먼저 Residential College(RC) 도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RC는 기숙사가 단지 주거만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도 경험하고, 소속감도 갖고, 이화의 정신과 가치도 익히고, 글로벌 여성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여성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기숙사가 주거공간만이 아니라 교육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범실시 중으로 2015년부터 전면 실시되어 신입생부터 전체 학생들이 반으로 나뉘어 한 학기씩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기숙사 건축을 위해 1년 이상 노력한 끝에 건축허가를 받아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기숙사 옆에 위치하게 되는데 200명 단위의 8개 College가 마련될 예정이고 예산규모는 1,000억원 입니다

그밖에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 프로그램으로는 2006년부터 시작한 EGPP (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2012년에 시작한 EGEP(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의 여성 인재 양성 및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및 단기과정으로 매번 경쟁률이 10대 1이 넘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 는 우리 이화가 세계로 나아가는 것과 세계의 여성이 이화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 즉 쌍방향의 개념입니다. 그동안 세계 여러

대학을 방문하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느낀 점은 앞으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글로벌 전략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화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교육, 연구, 리더십 등과 관련해 한국을 대표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위해 이화가 한국 여성을 넘어 세계의 여성을 위한 교육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 비전을 내실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과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비전에 공감하시고 기금을 마련해 주신 총동창회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20만 총 동창의 지지와 격려는 학교 발전에 기금 이상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회장 이번에 모금하는 기금이 우리 모교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기금인지 잘 들었습니다만 지난 파주캠퍼스 계획 철회에 따른 이화캠퍼스마스터플랜기금 전환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동창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장 이화캠퍼스 마스터플랜기금을 캠퍼스 리모델링 기금으로 오해하는 동창도 계신 것 같아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지난 몇 학기동안 신촌캠퍼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냉난방 시설 수선 및 강의실 환경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창들이 모금한 후원금을 여기에 사용했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전체 다 학교기금으로 했습니다.

전임 총장님 시절에 파주캠퍼스 계획을 위해 총동창회에서 50억 원을 모금해 주셨는데 학교가 파주캠퍼스 사업을 접으면서 총동창회와 동창들께서 50억 원 후원금 사용을 이화캠퍼스마스터플랜기금으로 전환해 주셨습니다. 동창들께서 근본적으로 이화의 발전을 위해 내 주신 후원금이었기에 장소가 변경되었을 지라도 이화캠퍼스마스터플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동의를 해 주셨고 소수이지만 환급을 원하는 동창들께는 환급해 드렸습니다. 파주캠퍼스 계획을 백지화 하면서 신촌캠퍼스를 최대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고민해서 마련한 것이 '이화캠퍼스마스터플랜' 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데 그 첫 번째 결실이 올해 말에 완공될 산학협력관 건축입니다. 총동창회와 동창들의 동의를 얻어 파주캠퍼스 사업기금을 이화캠퍼스마스터플랜기금으로 전환한 50억 원 기금이 바로 이 산학협력관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마련하느라 애쓰신 김순영 전 동창회장님과 동창분들께 이 지면을 통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50억 기금에 동참해 주신 동창분들은 1,660여 분 되시는데, 산학협력관에도 멋있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겠지만, 지난 5월 ECC 다목적 홀 벽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마련된 도너스월의 벽면과 디지털 월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학교를 방문하시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관은 대학의 R&D 입니다. 산학협력관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준 기관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솔베이사입니다. 산학협력관이 완공되면 솔베이 글로벌 본부 연구개발센터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서울서부센터,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기업체의 R&D 센터를 학교 내에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구역량이 강화되고 글로벌 수준과 함께 하며, 학생과 교수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노벨과학상 1호를 이화가 만든다' 라는 꿈을 갖게 해 준 프로젝트입니다. 연세

조종남 총동창회장

●

학교에서도 애쓰시겠지만 총동창회로서도 동창들께 나름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오다 보면 금화터널 위로 멋진 건물이 보이는데, 그 건물이 8천여 평의 산학협력관입니다. 공사비는 540억원 규모이고 완공은 금년 12월 말이며, 봉헌식은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이 때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지난 번 우리 총동창회에서 모금한 50억 원 기금은 이화캠퍼스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산학협력관 건립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번에 모금하는 30억 원은 RC를 비롯한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 비전 6개 핵심전략을 실행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애쓰시겠지만 우리 총동창회로서도 동창들께 나름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동창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의가 많았는데 총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되어 동창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총장 이번 '이화동창'을 통해 저의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지난번에 모금해 주신 동창회 기금 50억 원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편지로 소명했고 동창회 모임에서도 설명을 드렸으며, 총동창회에서도 기금 전환에 대한 동의를 얻어 주셨는데도 잘못된 정보를 가진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 기회로 전부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은 학교적립금이 많은데 왜 기금 모금을 하느냐고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학교적립금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화는 외국 대학에 비하면 적지만, 국내 대학 중에는 학교 적립금이 많은 학교로 뽑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학교가 비용을 절약하고, 투명하고 건실하게 재정운영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국내 외환위기 시절에 이자가 높은 예금에 2년 동안 고수익 투자를 해서 기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학교 적립금은 한 시대의 학생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각기 장학기금, 연구기금, 건축기금 등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적립금 이자로 학생들에게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기에 적립금 원금을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점은 2011년 감사원의 대학 감사 때 감사원 공무원들도 감탄을 한 부분이고 동창들께서도 이런 면에서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학도인 제가 누구보다도 더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대학교육의 세계적인 주요 트랜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화의 과학역량이 커져서 특허도 많아지고 기술 이전도 많아지면 학교 재정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화의 좋은 교육정신과 가치가 재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세계사회를 위한 이화여성교육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 이런 자리를 더 빨리 마련하였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이화를 사랑하는 열정이 동창들께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동창들도 우리가 성장하는데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력해야 할 의무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금이 모교 발전에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장 이번 기금은 총동창회에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 라는 비전을 갖고 한국의 이화에서 세계의 이화로 한 단계 뛰어 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총동창회에서 기금활동을 시작해 주셔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탄탄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학생과 교수,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와 교육의 성과물이 같이 공유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에 동창들에게 심리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금액수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여 학교발전에 공감하고 그 발전이 동창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비전의 6개 핵심전략 중에 '버츄얼 이화' 라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의 많은 강좌들이 영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 동창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은 학교가 이화동창에게 주는 평생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회장 총장님의 생각에 동참해서 소액이라도 많은 동창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 기금모금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후원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화만의 유일한 '선배라면' 과 '나눔가게' 가 있습니다. '선배라면' 은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눔가게' 를 후원하는 방법으로는 물건을 사주는 것 외에 물건을 제공해 주거나, 판매봉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재원이 되는 것 외에 재활용이라는 환경문제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한 가지 더 총동창회에 부탁드린다면 동창회의 조직력이 지금보다 더 탄탄해지고 인적 네트워킹이 강화되어 후배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창들을 새롭게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창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빅 데이터(Big Data)를 만들면 여러 면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 앞으로 대외협력처가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인적 풀 데이터(Pool Data)를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총장님께서 취임 만 4년째를 맞이하시고 저는 만 3년째를 맞이합니다. 특별한 새해 계획이나 동창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총장 2014년에는 학교의 비젼과 전략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히 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즈음 교육과 연구에서 강조되는 것이 융합인데, 대학이 전공 중심이고 교수 중심이라 융합이 쉽지 않지만, 연구와 교육에서의 융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새해의 중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곡지구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제2부속병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동창 여러분의 이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회장 새해 저희 총동창회도 20만 동창들과 함께 세계에 우뚝 서는 모교를 위해 '이화사랑' 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총장님과의 대담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 기금 모금이 순조롭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 시리즈/ 노교수와 사랑하는 제자들—영어영문학과

노교수의 회상

격세지감 드는 梨花캠퍼스, 제자들에 자부심

나 영 균

현재 이대 명예교수(영어영문학과, 1949년 졸업)
영어영문학회 회장, 세익스피어학회 편집이사,
현대소설학회 회장,
이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역임

사람은 언제나 첫 인상과 현재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는 것처럼 내 머리 속의 이화 캠퍼스는 1945년 때의 모습과 지금의 그것이 겹쳐지고 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5년 3월에 나는 입학시험을 치러 처음으로 신촌 이화 캠퍼스를 찾았다. 모든 여성들이 이른바 '몸빼이' 라는 고쟁이 같은 괴상한 바지를 입도록 강요당하며 학생들의 일상은 근로봉사로 채워지고 군국주의적 구호가 온 사회를 뒤흔드는 살벌한 때였다. 일본 총독부는 '이화' 라는 이름을 민비(명성황후)가 하사한 것이라 하여 사용금지령을 내려 당시 학교명이 경성여자전문학교라고 되어 있었다. 공식으로야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는 언제나 '이화' 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생각하고 있었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던 내가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울창한 송림(松林)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새하얀 석조건물 본관의 아름다운 모습에 숨을 죽였다. 솔밭의 소나무들은 고화에서처럼 운치 있는 곡선을 그리며 가지들을 맞부비며 밀생하고 있었다. 솔밭 사이로 체육관이 있고 운동장을 사이로 그 반대편에는 역시 멋진 석조건물인 음악관 그리고 교육관이 있었다. 체육관 뒤 언덕에는 영학관과 롱뷰(총장공관), 본관 뒷켠에는 기숙사가 작은 규모로 세워져 있었다.

아름다운 캠퍼스는 그러나 일본 군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학생들은 겨우 중강당(음악관에 있는)과 본관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각 건물 앞에는 방공용(防空用) 모래주머니들이 보기 흉하게 쌓여있고 여기저기에 군인들 모습이 보였다.

제일 학생들이 싫어했던 것은 정문에서 본관으

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초병(哨兵)들에게 오갈 때마다 경례를 해야 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외면을 한 채 고개를 숙이는 듯 마는 듯 그 앞을 다름질치며 지나곤 했다.

1학기가 중간에 접어들 무렵 학교에서는 난데없이 본관 지하에 병원을 개설했다. 누가 뭐라지 않아도 학생들은 일본군에게 더 이상 학교를 점령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벼락치기 시설인데도 입원환자들이 있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 후 해방과 6.25를 겪으며 캠퍼스는 급속히 변모하기 시작했다. 과학관이 생기고 학관과 사범대학이 세워지고 대강당과 가정관이 들어섰다. 학생관도 생기고 그 뒤에 지금은 이름도 모를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차고 사범대학 뒤 언덕에도 큼직한 건물이 세워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생긴 지하 캠퍼스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 디자이너가 설계했다는 이 지하 캠퍼스는 보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면서 교실, 식당, 체육장, 회의실, 극장, 책사, 은행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드는 변모이다.

오늘의 초현대식 캠퍼스를 보면서 솔밭에 묻힌 석조건물을 떠올리는 것은 한낱 늙은이의 어리석은 넋두리인지도 모른다.

이 캠퍼스에서 나는 학생시절부터 교직에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긴 세월을 지냈다. 처음 미국유학을 다녀와 전공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긴장도 되고 또 포부도 컸다. 유학시절엔 한 학기에 10권을 읽었으니 한국에서는 적어도 3권은 읽어야지 하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막상 해보니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우선 영어로 된 작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당시만해도 지금과 달라 독해력이 많이 떨어지던 때이다. 결국 줄이고 줄여서 한 학기에 1권으로 낙착시켰다. 대신 시간 중에 작품 읽기를 많이 했다. 혼자 읽는 것과 학생들과 강의 중에 읽는 것은 같은 작품이라도 완연히 달랐다. 학생들의 호응과 반응은 작품에 대한 나 자신의 감응과 인식과 평가를 좌우하게 되었다. 젊은 마음들이 문학에 감응하는 강도는 매우 감동적인 것이 있었고 그들의 반응에 나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 가르치면서 배운 것이다.

신기한 것은 학계와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졸업생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에서 읽었던 작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이다. 그들이 갖는 그 마음은 가장 소중한 독자의 마음가짐이며 가장 작가가 반기는 자세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심어주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데에 어떤 자부심을 갖는다.

제자들의 이야기

재색과 학문의 '아우라'를 겸비한 대스승

김 정 매 *(63년, 동국대 영문과 명예교수)*

나영균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1961년 영소설 강의실에서였다. 지금도 선생님이 짙은 푸른색 원피스를 입으신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니트웨어여서 선생님의 30대 전반의 멋진 S자 몸매를 그대로 드러냈고,

굽높은 하이힐과 특이한 숏 커트의 머리 모양은 하나의 완벽한 예술품이었다. 우리 모두는 선생님을 닮으려고 작정하고 무척이나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다. 그러나 문제는 D. H. 로렌스의 '무지개' (The Rainbow)란 교재였다. 영어도 걸림돌이 되었지만 로렌스 특유의 인물 설정이 인생 숙내기 우리에겐 이해가 잘 안 되었다.

하루는 한 '간 큰' 학생이 3대에 걸친 브랑윈 가의 이야기 중에서 2대의 애너 브랑윈에 대해 질문을 했다. 바로 애너가 신혼기를 지나 만삭이 되었을 때 남편을 몰아내고 혼자서 배를 위로 쳐들고 '생명의 신'에게 바치는 나체 춤을 추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깔깔대며 한참을 웃으셨다. 무엇이 그렇게 우습단 말인가? 내가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결혼을 하고 대학원 공부를 할 때였으니 10년이 지난 때였다. 방학 때면 우리 영소설반의 10명이 넘는 학생들은 늘 신교농의 선생님 댁(아직도 살고 계신다)에 모이곤 했다. 61년, 62년에는 커피가 매우 귀한 음료였는데 우리 모두에게 커피를 대접하시고 성의껏 지도하셨다.

70대 중반에 들어서신 선생님은 인사동에서 수묵화 전시회를 여셨는데 화랑을 메운 작품들은 우릴 또 다른 호사스럽고 '머언' 세계로 이끌었다. 선생님은 집필에도 열을 쏟으셔서 조지프 콘라드, 버지니아 울프, 제임스 조이스 등에 대한 학문적인 저서뿐 아니라 수많은 번역서를 출간하심으로써 영문학계의 여성학자로서 최고봉을 이루신다. 이러한 학문적인 성취 위에 선생님은 자전적인 저서를 일본과 국내에서 출간하셔서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으셨다. 80 중반을 바라보시는 지금 그 후속편을 완성하셨다니 그 필력에 우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

스승 나영균(羅英均)선생님

이 명 화 (64년, 수필가, 이대동창문인회 회원)

선생님을 떠올리면 왠지 내게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아주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큰 슬픔을 겪어서 그런지 내내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닌데, 선생님께 점심 얻어먹고 말씀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냥 모든 것이 운명이려니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별히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번뇌든 슬픔이든 겪을 만큼 겪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체념 반 순명(順命) 반의 마음상태가 되는데 일조를 해주신 것 같다. 이것저것 선생님의 저서와 번역서들을 모아보니 꽤 여러 권이었다. 선생님의 명역으로 서울대출판사에서 1995년에 초판이 나온 제임스 조이스의 '예술가의 초상' 은 2013년에 몇 번 째 재판이 나올 만큼 정평이 나있다. 수업으로 듣던 기억까지 떠올라 교보에서 이 신간을 발견하고 반가워 얼른 구입했다. 학자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오신 선생님의 발자취들. 20여 년 전 정년퇴임식장에서 하객들에게 나누어주신 에세이집 '안경너머 세상' 에는 선생님의 둘째 따님인 전수용 씨의 '어머니의 수필집 발간에 부쳐' 라는 발문이 있다.

"어머니의 매력은 40여 년 간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자식이나, 아버지에게도 항상 생생한 매력이다. 신선한 관찰력과 정신적 긴장과 절제와 삶에 대한 심미적 태도, 그 모든 것에서 우러나는 독특한 향기다."

내가 느끼기에도 선생님께는 '독특한 향기' 가 있다. 늘 유지하고 계신 '정신적 긴장' 과 '절제' 등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이 뵙기에 좋다. 如庭이라는 아름다운 별호(別號)로 오랫동

왼쪽 부터 성양경(60), 이명환(64), 김숙현(67), 최청규(65), 김정매(63) 동창, 나영균 교수, 김정옥(67), 김정숙(65), 이정숙(77) 동창

안 문인화(文人畵)와 서예(書藝)에 심취하고 계신 선생님이 존경스럽다. 저의 정신적 스승이시기도 한 如庭 나영균 선생님! 만수무강하소서.

'따스한 지성' 속에 열정 가득

김 숙 현 *(67년, 전 코리아헤럴드 해외부장, 한세대 교수)*

은퇴 후에 집필하신 저서와 번역서가 말해주듯이 나영균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그 중 2004년 출간된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은 교수님의 가족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지식인 사회의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내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 책의 후속편격인 '내가 살아온 세상' 을 나교수님은 얼마 전 탈고하셨다고 한다.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역사적 사건과 연관해 자신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화제작이 될 예감을 준다. 교수님의 순탄해 보이는 인생이 사회적 역사적 사건의 프레임 속에서는 드라마틱해지고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집필 활동은 교수님의 중요 일과이다. 사부님과 함께 매일 사무실에 나가 컴퓨터를 켜 놓고 본인의 삶에 축적된 문학적 자산을 클릭, 클릭하고 계신다. 하루 50분 운동도 빼 놓지 않으신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학교 때, 제자들이 흠모하던 지성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다. 다만 그 시절의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차가운 지성미' 에서 '따스한 지성미' 로의 변화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준다고 할까.

학창 시절 교수님께 감명 깊게 들은 희곡 강의가 생각나면서 문득 희극과 비극의 관점에서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궁금해졌다. "인생에는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지. 비극적 사건은 외부의 영향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자신이 만든 것도 있어.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대하는 마음에 따라 달라져요. 속상하고 불쾌한 일은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 노력하면 잊혀지기도 하지." 그래도 몇 년 전 심장근육 장애가 생겨 세상을 떠난 손자 이야기를 하실 때 목소리의 작은 떨림은 제자들 가슴에 큰 울림을 전한다.

남성은 사회, 여성은 가정' 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이 완벽한 상식이던 시대에 가정과 직장 생활 양립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1993년 한국영어영문학회 최초 여성회장으로 선출되셔서 학계에서 여성 영문학자들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은사님.

그 식지 않는 열정, 학문적 자세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생활로 후학들에 대한 가르치심은 세월의 벽을 훌쩍 뛰어 넘고 있다.

기획 시리즈/ 소설가 김선주가 만난 이화 경영인

대한민국 철도와 함께한 40여 년 부품 국산화 성공한 철도의 대모

김 정 자 회장

(2002년 이화여성고위경영자 과정)

* 안녕하십니까? 1972년 철도 부품회사인 유진기공산업(주)을 설립하여 41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시킨 회장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장님은 이대에서 제 7기 알프스 과정, 2002년 이화여성고위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우리 이화대학을 선택하셨는지요?

저는 신혼 때부터 남편과 함께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철도부품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기계들을 외국에서 수입했었어요. 철도란 한 나라의 기간산업인데 비싼 수입품에만 의존하면 언젠가는 그 나라에 종속되고 만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부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방하는데 그쳤지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인재들을 스카웃하는 등 기술개발에 전심전력을 다 했습니다. 하나하나 국산화하면서 회사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외적인 일들은 남편이 맡고 저는 공장 안에서 부품생산과 안살림을 맡아 해왔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좀 더 학문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경영학을 공부해야겠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할애하여 경영대학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20여 년 전에 가시고 나자, 저는 좌절하지 않고 더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서 합리적인 경영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산업 기술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비록 이화대학 학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AMP 중에서 역사가 제일 깊은 이화여성최고위경영자 과정에 등록하고 이대를 오고가면서 가슴이 설레곤 했습니다. 고매하신 교수님들의 강의도 훌륭했지만, 젊은 날에 꿈꾸던 이화대학의 학생이 되었다는 것이 더 가슴이 뿌듯했어요. 65기생인 제가 88기가 되도록 계속 재수강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며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지도 모르는 회사 경영에 늘 새로운 지식과 활기를 불어넣곤 합니다.

'학교는 지식, 사는 것은 지혜' 라고 하는데, 저는 이곳에서 미흡했던 지식과 지혜를 함께 병행하면서 진정한 삶의 진리와 글로벌 회사 경영을 터득하며 쉴 새 없이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철도를 국산화한 철도부품회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집니다. 유진기공산업주식회사 업무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는 철도차량 부품의 제조 및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철도차량의 핵심 기능품은 물론, 최첨단 고속전철의 제동시스템, 집전장치, 연결기 등을 설계 제작 공급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갖춘 철도 전문 기업입니다. 또한 차량의 안전한 운행에 기반이 되는 경. 중 정비 사업에도 진출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고 미래 철도차량 부품산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를 위해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는 각종 철도차량의 제동시스템 및 핵심제품의 고유기술 확보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국제화하는 고객 요구나 환경에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최우수 전문가들이 기술연구소에서 불철주야 일하고 있습니다.

* 여성의 몸으로 다소 거칠다고 할 철도부품 사업을 성공시키신 회장님의 모습이 너무나 훌륭하고 자랑스럽습니다. 40여 년 간 회사를 발전시키면서 기업철학이 있으시다면?

저는 직원들에게 '영업은 일시적이고 품질은 영원하다.' 라는 말을 자주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제품을 만들 때, 회사의 신용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회사가 발전해야 여러분의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직원들을 한 가족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모든 일은 직원들이 앞장서서 하니까, 저는 다만 그들의 애로사항을 보살피고 일을 하도록 대내외적인 여

자녀들과 함께한 김정자 회장 부부

건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오직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을 할 뿐입니다. 또 직원들 식사를 중요시해서 처음에는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오래 있던 분이 맡아서 하는데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식단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생산직 직원이 먼저, 관리직 직원이 후에 식사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 생산이 중요하며 만드는 분들이 우선이라는 말이지요. 일류 재단사가 옷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단추까지 달아야 완벽한 옷이 되듯이 모두 맡은 일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수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을 더욱 철저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는 IMF에도 문을 닫은 적이 없고, 450여 명 직원들의 월급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저의 회사의 사훈은 '확인' 입니다. 제동장치를 비롯한 철도차량 부품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확인' 이 필수적입니다. 제품 검사부터 시작해 감리 과정을 철저히 지키고, 인증을 통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사와 직원의 동반성장'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같은 리더십' 이 기업철학이라고나 할까요?

***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과 합작회사를 하지도 않고 국산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신 회장님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에서 훈장이라도 받으셨는지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품을 수입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합작회사를 하자는 회사도 많았지만 언젠가는 그 회사에 종속되어버린다고 판단하고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철도부품 회사가 되었고, 스마트 기술로 개발한 공기 압축기(산업용 컴프레셔), 컴프레셔에 소요되는 전기를 절약하는 인버터 제어방식 제동장치, 기름이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 오일프리 등 특허제품이 수없이 많고 전부 국산화하는데 열정을 바쳤습니다. 우리 유진의 발전은 한국 철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해외 시장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은탑훈장을 받았지만 철도부품 국산화를 인정받아 산업계 최고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 가족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저의 남편은 모든 일에 성실하고 유능한 샐러리맨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소중해서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아이를 업고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47년 전이에요. 처음에는 가정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급기야는 제가 기계를 사서 공장을 차리게 되었지요. 우린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3남 1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사업하랴 아이들 기르랴 정말 바쁘게 살았지요. 첫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고, 둘째 아들은 우리 회사 사장이고, 막내아들은 부사장으로 있고, 딸은 의류계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화최고위경영자 과정을 계속 재수강하시며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젊은 날, 이대를 놓쳤지만 저의 딸과 며느리는 모두 이화여대 졸업생입니다. 저 또한 이화를 무척 좋아하여 이화최고위경영자 과정에 입학하여 계속 재수강하여 65기부터 88기까지 10년 넘게 다니면서 이영회 일원으로 자랑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어느 대학보다 이대에서 여성고위경영자과정 수업을 들었던 것이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도 되었습니다. 88기 때는 8명 밖에 되지 않던 수강자를 정원이 초과할 정도로 늘어나게 하였답니다. 저의 바램은 이영회 수강자가 더 많아져 100회를 넘어 길이길이 발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영회에서는 '이화' 발전기금도 기꺼이 내고 있습니다. 이대에서 경영자를 키우려면 이영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이영회 회원들은 이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저 또한 이영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 섬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우먼파워 하나로 기업을 성공시키셨으며, 철도차량 기업으로는 세계 유일의 여성 경영인이신 회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인터뷰 내내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고,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이화'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글. 김선주/불문65. 한국소설분과 회장, 이화동창 편집위원

2004 한국 산업기술대학 명예경영학 박사
2003 (주)유진차량, (주)유진전기기공 회장
2006 (주)유진기공산업 회장
1994 일본 능률협회 품질관리 표창
2002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전문경영자 대상 수상
2007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현재 안산 상공회의소 부회장, 안산세무서 세정자문위원회 위원

자랑스런 이화동창 |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세계적 리더 되려면 우리 역사부터 알아야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최초의 여성 수장

1978년,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연구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출발했던 한국학중앙연구의 첫 여성 수장(16대 원장)으로 이화여대 총장과 국가브랜드위원장을 역임한 이배용 동창이 취임하였다.

"우리나라가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현세대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봐요. 전통시대부터 내려온 문화 DNA와 창의성 그리고 협동심과 인본정신이 바탕에 깔려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동창은 2000년 들어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1.0 시대가 K-POP이라는 2.0으로 이어졌다면, 이젠 스토리로 차별화해야 한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로 확산되는 한류3.0으로 업그레이드되며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한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차별성과 감동을 주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수한 우리만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관된 고문헌들을 활용해 한류3.0의 원천으로 제공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고전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이 동창은 장서각에 보관된 국가왕실문헌 10만 여 점, 민간사대부 문헌 5만 여 점 등의 자산을 활용해 글로벌 아카이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어려서부터 이 동창은 이야기 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글을 일찍 깨우쳐서 책을 읽으면 금방 외워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 할머니께 매일 밤 들려드리곤 했어요. 당연히 할머니께서는 이야기 잘하는 손녀딸을 무척 칭찬하셨지요."

총명했던 이 동창의 이야기 솜씨는 초등학교 때 우리 역사를 처음 배우며 선생님을 대신해 동무들에게 재미있게 강의할 정도로 발전했다. 감탄한 선생님의 '너는 커서 꼭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라' 는 말씀이 꿈을 심어주고 이 동창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다.

"한국학이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시기에 한국역사를 전공한 제가 한국학의 최고기관을 맡게 되니 학문의 본향을 찾아온 것 같아 무척 감개무량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마치 백미러가 없는 자동차처럼 제대로 전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통이 미래라는 의미의 '오래된 미래' 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동안 내일의 주인공이 될 꿈나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이 동창의 열정은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지도층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학 아카데미를 만들어 국민들과 접점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할 때 자꾸 중국 고사성어만 인용하곤 하는데, 우리의 정신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한국의 어록' 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앞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그 작업도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통과 미래, 전문성과 대중성 그리고 연구와 교육, 한국과 세계가 더욱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동창은 이화 동창들에게도 '물을 마실 때는 우물 판 사람의 공로를 잊으면 안 된다' 는 속담이 있듯이 처음 한 명의 학생으로 어렵게 시작한 스크랜튼 선생님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화라는 거대한 숲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선대에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시키며 이어가려면,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속의 빛나는 보석을 발견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사명으로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낸 장점을 살려 문화리더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여성(Female), 상상력(Fiction), 감성(Feeling)이 중요시되는 3F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따뜻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키우는 이화대학을 세계 최고의 학문과 지성의 전당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글. 백수성(신방'79, 이화동창 편집위원)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이화여대 명예교수,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분과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사사편찬위원회 위원,
전 이화여대 13대 총장,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2대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의장,
건양대학교 석좌교수,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대 회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 통일부 통일고문회의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 조선시대사학회 회장,
한국여성사학회 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한국사상사학회 회장 역임
수상/ 이화여고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 '글로벌 리더십 상',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대회 '김활란 여성지도자 상', '청조근정훈장' 수상, 5.16 민족상(사회 · 교육부문)

박석순 환경공학과 교수가 추천하는 2014 이화 유망주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예보팀장 나은혜

대한민국 미래 환경 대통령, 꿈 이룰 환경공학 박사

나은혜 박사가 환경공학과 학부생 시절부터 석 ·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나는 지도교수로서 열정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나 박사는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나 나와 함께 좋은 논문을 많이 낸 제자이기도 하다. 특히 박사과정에서 나와 함께 쓴 두 편의 논문이 환경분야 세계적인 SCI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그 업적으로 나는 2007년 1월 한국연구재단에서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 상을 수상하였다. 우리 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지금까지 이달의 과학기술자 상을 수상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그래서 내게 나 박사는 매우 고마운 학생이고 우리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는 존경받는 롤 모델이다.

나 박사와 나의 인연은 이화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내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 덕분에 나 박사가 우리나라 물환경관리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역시 '이화' 동창답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나은혜 박사에게 다시 한 번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활동과 연구 업적을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공학과 2회 졸업생이지, 세계 최초의 여성 공과대학인 이화 공과대학에서 배출한 환경공학 박사 1호인 나 박사가 환경공학과 20주년 기념식장에 참석하여 직접 자신을 소개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1994년 당시 이름도 생소한 자연대 환경과학과에 입학하였고, 1996년 공과대학이 설립되면서 환경공학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학사, 석사 그리고 2005년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화 캠퍼스에서 공부했고 박사학위 취득 직후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2007년에 박사특채로 환경연구관에 임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질통합관리센터에서 수질예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97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환경관련 국가기관으로 1980년에 환경부의 전신 환경청으로 설립되면서 현재 환경부 소속 국가 종합환경연구기관입니다. 현재 900명에 가까운 석 · 박사 고급 인력이 물, 대기, 토양, 폐기물, 기후변화, 생태계, 환경보건, 생활환경, 자동차 공해, 화학물질 사고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강과 호수의 수질모델링과 물 관리정책 분야를 연구하였고, 이곳에서도 전공을 살려 입사 이후 9년째 물환경연구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준유량과 목표수질 설정,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선정, 4대강 수질영향예측 등 주로 수질모델링을 통한 장래 예측 · 평가로 국가 물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질예보제 운영, 새만금 수질예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는 바쁜 업무지만 이화에서 배운 지식으로 국가환경정책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상의 연구진과 연구환경에서 나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감사함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화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창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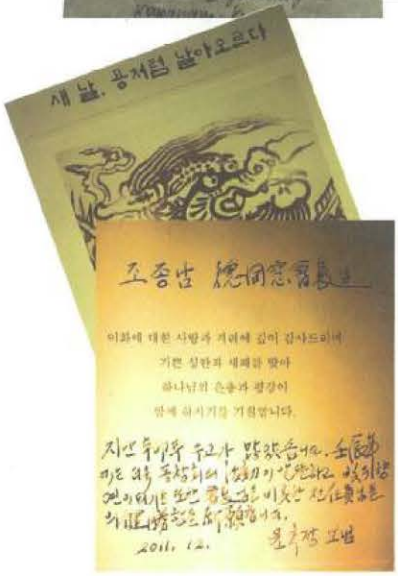
박석순

현재 이대 환경공학과 교수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미국 프린스턴대 토목환경공학과 객원교수 역임
서울대 자연대, 미국 럿거스대 환경과학과 석사 및 박사 후 연구원
수상/ 전국대학생 논문 발표대회 최우수상(문교부 장관상),
한국연구재단 이달의 과학기술자 상,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표창

나은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수질예보팀 팀장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이대 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및 공과대학 환경공학 박사,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특채
수상/ 환경행정 업무추진유공 환경부장관 표창,
국립환경과학원장 표창, 2013년 세계 물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

내가 받은 잊지못할 연하장



유재라 봉사상 수상자 박양미 선교사가 보낸 연하장

문희(약학 59, 제17대 국회의원)

내가 한국여약사회 회장(제3, 4대)을 역임하고 있었던 2001년, 유한재단이 제정한 유재라 봉사상 여약사 부문을 국제 키베라 몬테소리 어린이 학교 설립자인 박양미(약학 82) 선교사가 수상하였다. 박 선교사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어 연락관계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 후 8년이 지난 2009년 박 선교사가 총동창회에서 수여하는 '아름다운 이화인 상'을 수상하게 되어 귀국하면서 나는 박 선교사와 함께 인사차 유한재단 연만희 이사장을 방문하였다. 연만희 유한재단 이사장께서는 박양미 선교사 수상을 축하하며 박 선교사의 정신이 바로 '유재라 봉사상' 제정 정신과 부합한다면서 즉석에서 500만원을 희사하였다. 남아공 선교지로 돌아간 박 선교사는 그 해 연말에 아주 작은 연하장인 Season's Greetings을 작은 액자와 함께 보내왔다. 수없이 많은 연하장 중에서 나는 아직도 이 연하장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기에 이번 기회에 모든 이화 동창들께 알리는 기회가 되어 매우 흐뭇하고 뜻 깊게 생각한다.

40여 년 동안 해마다 외국 친구가 보낸 연하장

최청규(영문 65)

우리가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적어도 1990년대 말 까지는 새해를 맞으려면 연하장을 손수 써서 우편으로 부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의 급속한 보급으로 자주 소식을 접하다보니 요즈음은 새로운 소식들을 이메일로 주고받는 일이 흔하고, 연하장을 정성껏 쓰고 받는 일소차 별로 신선한 느낌이 들지도 않는 것 같다. 그래도 나에게는 지난 4,50 년간 한결같이 연하장을 주고받는 외국친구가 어럿 있어서 연말연초면 그사이 밀렸던 소식들을 연하장과 함께 나누곤 한다. 16년 전 IDC(International Dragon Circle)이란 모임을 만들어 열심히 즐겁게 한국문화를 공부하고 견학하던 친구들이 있었다. Renate도 그런 친구 중의 한명이다.
그녀는 쉐링 한국지사장으로 부임한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10여 년 간 살다가 일본 지사를 거쳐 지금은 남편의 고향인 싸이프러스로 돌아가 살고 있다. 아직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한국 소식만 접하면 열광하며 소식을 전해주곤 한다.
매년 그녀의 연하장을 받을 때마다 나는 그녀가 우리 것을 배우던 열정을 추억하며 그리워한다.

글자 하나 하나가 생명을 가진 연하장 받고 감동

조종남(의학 75, 조윤희 산부인과 원장)

2011년 모교에서 총동창회장의 부름을 받은 후 익숙하지 않은 총동창회 일을 말아 눈물 콧물 빼며 일에 임하고 있던 연말에, 프린트로 복사된 것이 아닌 손수 쓰신 윤후정 명예총장님의 "새날, 용처럼 날아오르다"라고 적힌 신년 격려의 글에 감사의 기쁨이 충만했다. 또렷하게 한자가 섞인 글이 얼마나 고풍스럽고 정겹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신묘년 한 해의 수고를 칭찬하시고, '임진년에는 더욱 총동창회의 활동이 알뜰하고 빛의 향연이 띄기를, 또한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님들의 건승함을 기원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글자 하나 하나가 생명을 가지고 내뿜는 숨결 같았다. 지진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는 것 같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고두고 보면서 고이 간직하고 있다.

기획르뽀

세계 최고 최초 지향,
우리 모교 이화여대 탐색 세 번째

20만 동창들 꿈과 사랑 담은 이화 동창회관

1997년에 건립, 이화-삼성 교육문화관으로 명명

개교 이래 국내외 최고, 최초를 지향하는 우리 모교 이화의 다양한 건물과 시설들을 시리즈로 집중 탐색하는 난을 마련하였다. 이 난을 통해 동창들이 모교를 찾아 자주 발걸음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호에는 이화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평생교육의 꿈을 이어가는 이화동창회관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1995년 2월 총동창회 주영희(성악 57) 회장은 1989년부터 모금한 동창회관 건립기금 13억2천6백만 원을 정의숙 이화학당 이사장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8만여 이화인들의 뜨거운 사랑이 모인 이 건축기금에는 서울은 물론, 지방과 해외 동창의 적극적인 참여와 음악회, 패션쇼, 바자회 등 총동창회 행사 수익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해 6월 첫 삽을 뜬 총동창회관 건물 기공식에는 정의숙 이사장, 윤후정 총장, 주영희 총동창회장, 학생 대표, 삼성건설을 비롯한 건축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 2년 남짓 땀과 정성이 쌓여 1997년 이화-삼성 교육문화관이라고 명명한 총동창회관 봉헌식이 열렸다.

이대부속 초등학교 옆에 자리잡은 교육문화관은 지상 8층, 지하 4층 건물로 1천여 평의 부지에 연건평 5천 여 평, 160억 원 예산으로 지어졌다. 이 건물은 1층부터 7층까지는 언어교육원과 평생교육원, 교수학습개발원이며 총동창회관은 8층 전층을 사용하고 있다.

이화 동창들의 간절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동창회관 건립이 실현되면서 정든 교정을 떠나 사회에 진출하거나 가정을 이룬 동창들이 다시 만나는 공간으로, 평생교육과 문화나눔의 장으로, 모교에 대한 사랑과 새로운 용기를 얻는 따사로운 요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989년 총동창회 임원회서 '이화동창문화회관' 건립에 뜻모아

이화 동창들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던 동창회관

건립의 열망은 1989년 9월 당시 총동창회(장의순 회장) 임원회에서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구현할 '이화동창문화회관' 건립에 뜻을 모으면서 비롯되었다. 그해 11월 당시 동창여왕 일동이 희사한 8,829,140원을 밑거름으로 1,500명이 넘는 개인 동창과 지방지회, 24개 해외지회 동창회에서 정성에 정성을 모은 덕분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수천 만 원까지 동창들은 선뜻 마음을 담아 기금을 희사하였다. 총동창회 역시 크고 작은 바자회 38회, 음악회 3회, 만찬의 밤 2회, 패션쇼 1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금 모금에 불을 지피고 그 수익금을 기금에 쏟아 부었다.

1989년 11월 총동창회 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동창회관 건립기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희사한 309명의 동창 이름을 동판에 새겨 영구 보존하게 되었다(단, 기부금은 1997년 1월 31일자로 마감하였다). 따라서 이전까지 사용했던 동창회 공간은 1997년 1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에 기증하였다.

모교의 교육문화관 신축으로 1개층 동창회관 건립에 합의

1993년 12월 '이화동창문화회관'을 '이화동창회관'으로 개칭하였고, 1994년 10월에는 모교가 신축하는 교육문화관의 1개층 전부를 동창회관으로 짓는 데 합의하고, 총동창회가 건축비와 내부시설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오늘의 동창회관으로 완공

하였다. 8층은 이화동창회관으로서 대회의실, 소회의실, 세미나실, 동창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대회의실(806호)은 총동창회 정기총회 같은 공식적인 행사뿐 아니라 단과대학별 모임이나 과모임 장소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영문과의 경우 춘계와 추계 강좌를 열어 건축학자 등 외부 전문 강사를 초대해 식사를 곁들인 특강을 진행해오고 있다.

총 200석 규모이며 특강 외에도 소규모 전시회와 음악회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동창들이 멋진 아이디어로 문화마당, 교육마당을 가꾸어볼 일이다.

동창회관 알리는 자그마한 안내판 아쉬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동창들이 이화-삼성 교육문화관 안에 동창회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정표나 푯말이 보이지 않아 간혹 우왕좌왕 할 때가 있다. 이번 기회에 안내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특히 정문에서부터 이화에 대한 추억을 만끽하며 교정을 거닐 때 동창회관을 알리는 자그마한 안내판이라도 눈에 띄게 해준다면 한결 기쁜 마음으로 동창회관을 찾고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낄 것이다.

우리 동창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세미나실이나 대회의실을 찾는다면 건립 초기의 열정, 사랑, 꿈의 불이 다시 지펴져 동창회관이 더욱 북적기리고 활기가 가득하리라 기대한다.

대회의실 이용 안내

대관 요금	기본 4시간(1시간 당 9만원) 단과대학 · 과 동창회 이용시 50% 할인 *공통사항 : 냉난방비 10만원 별도
수용 인원	총 200석(케이터링 가능)

글. 박정희(신방 90,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소식

2013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제 12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2013년 10월 24~27일까지 워싱턴 DC의 McLean Hilton Tysons Corner에서 열렸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창들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총회는 워싱턴 DC 지회(회장 오혜경/영문 72)에서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총동창회 조종남 회장을 비롯하여 박유나 부회장, 이혜양 지역부장 등이 참석하여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독려하였다. 향후 총회 개최지로 2014년-샌프란시스코, 2015년-아틀란타, 2016년- 휴스톤, 2017년-뉴욕으로 결정되었고 총동창회는 201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게 될 제 13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의 성대한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화가족 성탄예배' 떡 기증

구랍 5일 오후 3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가족 성탄예배' 에서는 참석한 총동창회 임원들이 함께 참석한 재학생들에게 일일이 떡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여 훈훈한 성탄 예배가 되었다. 선후배 동창들, 재학생, 교직원이 함께 자리하여 지나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기도 시간을 가진 뜻 깊은 행사였다.

광주지회 '송년모임' 참석

모교 '글로벌 여성교육 허브 기금' 모금 독려

구랍 13일 광주지회(회장/유혜자, 영문 67) 송년 모임에 조종남 회장을 비롯하여 박유나 부회장, 박경임 문화부장, 위성숙 재정부장 등이 참석하여 지회 동창들과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서 조종남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소식을 전하며 모교의 '글로빌 여성교육 허브 기금'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광주지회 동창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약정서 9개를 전달받았으며 다른 동창들도 2014년 신년 모임에서 약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14년에도 총동창회는 더욱 많은 지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정기임원회

2013년 10월 16일 이화삼성교육문화회관 8층 총동창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임원회에서는 제 9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실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11월 25일에 개최할 '이화인의 밤' 행사 논의를 하였다.
11월 13일 정기임원회에서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화인의 밤' 행사의 마지막 점검 토의를 하였으며 구랍 11일 정기임원회는 '이화인의 밤' 행사 평가를 하였다.

올해의 이화인 및 후원이사 오찬

구랍 18일 학교법인 이화학당 행정동에서 '이사장 초청 올해의 이화인 및 후원이사 오찬' 행사가 있었다. 이 날 행사는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는 후원이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장명수 이사장께서 수최한 것으로 모교 김선욱 총장, 총동창회 윤순희, 김순영 고문 및 조종남 회장을 비롯한 후원이사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기

이화인으로 큰 자부심 느끼며 2014 샌프란시스코 총회를 기대

2013년 10월 24~2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다녀오면서 오늘날 이화가 있기까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자랑스러운 선후배들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10월 24일 오후 8시 첫 공식 일정인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정기이사회가 시작되어 총동창회에서는 준비한 이화 마크가 찍힌 가방 등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10월 25일 아침식사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동창들의 루레이 동굴관광, 종이접기 공예, 김인숙 박사(FDA, 제약 95)의 건강강좌, 이정실(director for ArTrio, 불문 86) 박사의 문화강좌 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있은 후 '총장님과의 만찬' 이 시작되어 이은숙(자수 79) 설치작가의 '치유와 화합의 설치미술' 에 대한 특별강연을 들었다. 이어서 각 지회별 탈랜트쇼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각 지회의 넘치는 탈랜트로 시간을 넘겨 아쉬웠지만 다음 날로 시상식을 미루고 폐회하였다.
10월 26일 북미주지회연합총회가 오혜경(영문 72)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개최되어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동창회소식, 각 지회보고, 결산 및 예산보고, 국제재단 사업보고 등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총회 후 워싱턴 DC 시내 관광, 최수영 박사(FDA, 약학 02)의

건강 강좌, 이소영 박사(Lee & Meier, 신방 78)의 법률상식 강좌, 이화진 동양화가(동양화 88)의 전시, 이은숙 설치 미술작가의 아트워크샵 등이 진행되었다.

힐튼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한 만찬 행사는 권경주 박사(NIAID/NIH, 생물 56)의 keynote 스피치, 버지니아주 최초의 한국계 주하원의원인 Mark L.Keam 의원 환영사에 이어 조종남총동창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만찬사에서 조 회장은 '이학' 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준 이화재단에 감사하며 북미주지회연합회 1만여 동창들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창회 활동상황과 비전을 알렸다. Mia Chung 교수의 열정적인 피아노 연주와 지휘자 이성희 교수(Midwest University, 미술 82)의 합창단과 함께 합창하는 이화사위들의 지원도 감동적이었다. 탈랜트 쇼 1등상은 남가주지회 '하와이춤' 이 수상하였다.

10월 27일 김모세 목사(the church of Philippi, MD)의 인도로 모든 행사를 기도로 마무리하며 이화 안에 하나가 되었고 다음 총회 개최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글. 이혜양(식영 79, 총동창회 지역부장)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마치고

아래 글은 2013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개최된 워싱턴 DC의 오혜경 지회장과 총회를 마친 후 총동창회와의 일문일답이다.

먼저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를 위해 최선을 다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였는지요?

오랜만에 워싱턴에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반가운 반면 좀더 훌륭하게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도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동창들이 준비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판, 만찬, 프로그램, 회원, 모금 등 부서를 만들어 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취미나 교회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는 동안 힘들었던 일이나 에피소드를 들려주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동안 동창회 모임에 참여하시지 않으신 동창들에게 우리 지회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각 지회장을 위주로 타 주에 계신 동창들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두 번째는 워싱

턴 DC에 거주하는 동창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였습니다. 더불어 북미주지회연합회 회보를 약 6천명의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창들에게 발송했으며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렸고 많은 이메일과 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총회 만찬에 310명이 넘는 동창들이 참석하였을 때는 정말 뿌듯했고 필요할 때 함께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동창들을 보면서 이화인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워싱턴DC 지회의 특성과 활동이 궁금합니다. 지회 동창들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워싱턴DC는 미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이화 동창들은 이렇게 잘 알려진 도시에 산다는 프라이드 외에 모교에 대한 사랑에도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회인만큼 훌륭한 선배들의 열정이 저희 후배에게 잘 전달이 되어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949, 50년에 졸업하신 김복희, 강서라, 강정희, 백경진 대선배님들 그리고 이번 총회 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해 주신 권경주 신배님 등 열거하려면 끝도 없이 많은 훌륭한 신배들이 많이 계신만큼 전통를 이어가는 동창회로, 후배를 사랑하는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배 동창들의 참여도 중요한데 젊은 동창들의 참여를 많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번 저희 총회의 모토가 'Cherish our Heritage to Impact the Future' 입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 미래에 영향을 끼치자는 뜻이지요. 소중한 전통을 미래와 연결하며 영향을 주려면 미래를 상징하는 젊은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창회는 재미가 있어야 동창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있으려면 대화가 통하는 친구들이 많아야겠지요. 후배들이 편하게 즐기도록 선배들이 자리를 만들어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동창회가 되면 강요하지 않아도 젊은 동창들이 스스로 참여하리가 믿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친 이번 총회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총회가 성공은 임원들이 각각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해 해 주었으며 많은 동창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일 년 동안 배운 모든 know-how가 한번만 쓰고 다시 쓸 기회가 없다는 점이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 년 동안 했던 모든 일을 문서화해서 다음 지회로 넘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발전을 위한 조언과 총동창회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다른 지회에서 총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좀더 문서화되고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동창회에 바라는 점은 총회 전부터 총회를 하는 지회의 임원들과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면 좀더 원만하게 총회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동창회 문화탐방을 마치고

조선왕조로 시간여행한 창덕궁 답사

2013년 10월 11일 새벽까지 요란하던 천둥소리가 눈부신 햇살로 바뀌어진 날씨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문화탐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깜짝 선물로 내려주신 것인가 싶어 감사하고 기뻤다. 한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창덕궁(비원)은 자연과 하나 되도록 지형에 따라 자유로운 배치로 독특한 조화를 이룬 한국적인 조형미가 인정을 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이번 문화탐방 해설을 맡은 황인혁 교수의 안내로 '대덕돈화'의 돈화문을 들어섰다.

이제부터 조선 왕조로의 시간 여행을 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궐내각사를 둘러본 후 금천교에 다다르자 조선조 태종 이래 비단같이 맑은 물 속에서 다리를 받치고 있던 동물 석상과 귀면의 부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호신의 의미라면 무서워야할 법한데 도리어 정겨운 모습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우리 선조들은 반어법에 강했나보다. 그만큼 여유롭고 해학적인 감각을 지닌 민족이 아닌가 싶다.

궁궐의 대표적 공간인 인정전과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정에는 품계석이 늘어서 있는데 연산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순조, 철종, 고종 임금이 이곳에서 즉위하였다고 한다. 한줄기 섬광에 눈을 뜨니 인정전 동쪽 선정전의 청기와가 쪽빛 하늘을 머금어 깊은 청록으로 빛나고 있다. 선정전은 왕의 공식집무실인 편전으로 위엄과 품격을 더하기 위해 특별한 청기와를 올렸고 또 지금의 청와대 기원으로도 추정해볼 수 있다고 한다. 희정당은 임금의 침실이 딸린 편전이었고 대조전은 왕비의 정당으로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 건물이며 구중궁궐이란 표현대로 외부와 단절된 어인들의 공간이었다. 대조전 뒤편으로 돌아가면 아담한 후원인 계단식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통담장과 글뚝에 벽돌 색을 달리해 장식하고 문자도안무늬를 만들어 예술적 조형미를 표현한 심미안이 감탄을 자아낸다.

마지막 여정인 낙선재 석복헌, 수강재가 하나의 일곽을 이루어져 있고 1847년 헌종의 후궁 김씨의 처소로 지어졌다고 한다. 이곳은 마지막 황후인 윤황후(순정효황후)가 1966년까지, 덕혜옹주와 이방자 여사께서 1963년부터 1989년까지 거처하던 곳이다. 아름다운 꽃계단와 꽃담, 다채로운 창살들이 쓸쓸히 사라져간 왕조 여인을 위로하는 듯 하다.

이 날 총동창회는 맛있는 점심과 행운권 추첨 등으로 우리에게 한바탕 웃음을 안겨주었다.

글. 유정희(의직 83)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 공연팀 이음회

국내외 활발한 공연으로 '이화' 알리며 사랑의 멜로디 전해

이음회(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동창 합창단)는 1986년 모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며 음대 동창 40명을 단원으로 특별연주하게 된 것을 계기로 창단되었다. 현재까지 교내외에서 10번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많은 연주를 하였고 2005년 7월 첫 음반제작을 하였다.

2006년 5월에는 한. 불 수교 120주년 기념 및 모교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 한글학교 교사 매입 기금모금 초청 음악회'를 파리에 있는 '에꼴 노멀(Ecole Normal)' 연주홀에서 열고 1만 유로 이상의 기금을 모금하여 협회에 기부하였다

2008년에도 이탈리아 북부에서 개최한 제11회 'ALTA PUSTERIA' 세계 합창제에 동양 최초로 참가하여 무반주 종교곡 과 한국 현대 합창곡, 민요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고 합창제에 참가한 30개국의 수 천 명의 합창단들과 친선 교류하였다. 2011년 5월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념 대 국민 합창제'에 참여하여 단원들 모두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기쁨을 누렸다. 특히 작년 4월에는 스위스 MOTREUX에서 열린 제49회 세계 합창제에 참가하여 TRES BIEN 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좋은 연주라는 평을 받았다. 이밖에 베트남, 캄보디아 빈민 병원 건립을 위한 자선음악회에 출연하여 모금 활동을 하였고, 새해 정기연주회를 구상하며 연습 중이다.

이음회는 이대 음대를 졸업한 동창이면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때문에 전공과 연령층이 다양하여 60대 선배부터 20대 후배까지 선. 후배가 만나 합창의 기쁨을나누고 생활의 지혜를 서로 나누며 삶의 경험을 교환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이음회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조경희(성악 80)단장을 비롯하여 앞에서 이끌어주신선배님들, 그리고 초기 지휘해 주신 윤명사 음대 성악과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화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 앞으로도 이음회는 이화의 이름과 한국의 여성 합창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주위에 사랑의 멜로디를 전할 것이다.

글. 이수연(92, 이음회 지휘자)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신청서

총동창회에서 모금하고 있는 '이화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래 약정서에 동창 여러분의 뜨거운 '이화사랑' 을 담아 총동창회 팩스 02-393-914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기관 · 단체 정보

성명(상호명) □익명 희망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본교 관계	□ 동 창 전공:	입학/졸업년도
	□ 학부모 자녀 전공:	입학/졸업년도
	□ 교직원 대학/처 과	
	□ 기업/단체	
	□ 기타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 (자택 / 직장)	
	전화 (자택):	(직장):
	E-mail:	휴대전화:
직장정보	직장명:	소속: 직위:

약정정보

약정금액	일금 원( )	
기부용도	□글로벌여성교육허브기금 ( )	□이화 캠퍼스마스터플랜기금 ( )
	□이화 장학기금 ( )	□기타 후원 용도 ( )

납부방법

일시납	년 월 일	신한 140-001-081822 (예금주 : 이화학당)	외환 048-22-01036-4 (예금주 : 이화학당)	우리 107-04-102624 (예금주 : 이화학당)	
분납	납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회) 월분납액 : 원			
	납부 방법	□자동이체(CMS)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이체일: □15일 □30일	
		□무통장입금			
		□교직원 급여공제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전액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 상단 익명 희망에 체크해 주세요.
□ 정보동의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에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문의: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Tel.(02)3277-2926, 2927, 3975 Fax.(02)393-9141 E-mail ewha21@ewha.ac.kr

선교부 소식

30차 단기선교 학생 환송예배

구랍 17일 제 30차 '단기선교학생환송예배' 가 이대 다락방전도협회 3층 예배실에서 있었다. 겨울 방학 중, 국내외(중국, 인도, 베남, 인도네시아, 케냐 등)로 단기선교를 위해 나가는 재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각 과의 선교부장, 동창 선교사, 선교부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송 예배를 가졌다.

김미순(기독 75)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사회로 김은경 동창(성악 64)의 찬양인도, 현영란(경영 89)동창의 대표기도에 이어 양명수 교목실장의 '내 증인이 되라' 는 말씀이 있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곳으로부터 오셔서 낮은 곳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죄 사함' 의 선포를 하셨다. 다른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학생들이 현지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그들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다. 단기선교 학생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단기선교를 위해 출발하는 학생들은 믿음에 대한 각오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의 격려사와 한현주(피아노 90) 선교사의 후배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 등을 들은 학생들은 예배 후 식사와 다과를 나누며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단기선교 학생 환송예배를 통해 처음 나가는 학생이나 여러 번 다녀온 학생들 모두 선교에 대한 설렘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만은 동일하게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수련회 마치고 각 기도실 방문

2013년 10월 15일 다락방전도협회에서 김은경(성악 64)동창의 찬양인도와 성혜옥(영문 70)동창의 사회로 20여명이 수련회를 가졌다.

찬양으로 시작하여 모교 이현혜 목사의 '알곡과 가라지' 말씀을 듣고 자연과학대 기도실을 시작으로 한우리 기숙사(한우리집)를 방문했다.

기도실에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 후 교정의 각 건물마다(ECC, 학생문화관 등) 기도실을 찾아 학교발전과 복음화,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대강당에서 '음악채플' 영상을 보며 다양한 방법으로 채플시간을 만들어 가는 교수와 재학생 등 '이화' 의 정성에 감동받으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최혜영(86, 생미, 어린이전도협회 국제본부사역) 선교사 방문

어머니 모교 찾은 선교사 자녀를 만나다

'이화'에서 만난 자랑스런 어머니와 아버지, 피도수 선교사의 여덟 후손들

2013년 11월 1일 오전10시 이화역사관 앞에 소형버스 한 대가 멈춰 섰다. 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이화를 찾았기 때문이다. 1928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피도수(Victor Willington Peters) 선교사의 후손 8명이었다. 피도수 선교사는 1928년 감리교단 소속으로 한국 땅을 밟은 미국인 선교사다. 1941년까지 서울 개성 강원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당했다.

그의 후손들이 이화에 찾은 이유는 특별하다. 피도수 선교사의 아내는 다름 아닌 1938년 당시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한 한흥복 동창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요 할머니인 한 동창은 큰딸 영은이가 한 살 반 되었을 때 다시 고국에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일제에 의해 추방당했다. 그 후 부부는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2녀 1남을 더 낳았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음식을 먹이며 모교인 '이화'에 대해 기회 있을 때 마다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후손들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이화'를 빼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영문과 재학 당시 영어연극 '작은 아씨들'에서 주인공을 맡기도 했고, 이화 농구팀에서도 활약했다. 이화역사관에 걸린 농구부 사진 속에서 어머니를 발견한 그들의 감격한 모습은 마치 어머니를 만난 듯하였다. 피도수 선교사는 첫 사역지로 지명받은 강원도 금화, 그가 직접 설계한 한국식 교회당에서 목회할 때 한 동창을 만났다. 당시 이화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한 동창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향한 신앙심이 있었다.

피도수 선교사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며 한국을 무척 사랑했다. 처음 피선교사의 청혼에 한 동창은 한국사람이 아니라 싫다고 하였다. 피 선교사는 그 말에 자신은 한국말을 하고 한국음식을 먹으며 한복을 입고 한국집에서 사는 한국인이라고 하였다 한다. 이에 감동하여

1938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다. 한국 최초의 국제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피도수, 한흥복 부부는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다. 1999년 간암투병 끝에 한 동창이 소천했으며 피 선교사는 2012년 8월 향년 109세의 나이로 별세할 때까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였다 한다.

아버지 추모 일주기를 맞아 자녀들 모두 한국을 방문하여 어머니의 모교를 찾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70세가 넘은 큰 딸 영은은 자신이 태어난 곳, 어머니의 모국을 거동이 원활하시도 않은 상태시만 목사인 남편과 아들딸 네 식구와 함께 방문하였다. 아들 영일(Mel Peters)은 변호사인데 연대 작곡과를 졸업한 김현경씨와 결혼하였고 마침 그녀의 친구인 한남대 김경옥 교수(불문)의 도움으로 동창회로 연결이 되었다. 마침 동창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동창선교부에서 그들의 안내를 맡게 되어 성혜옥(영문 70) 동창이 이들을 섬기게 되었다.

바쁜 일정 중에 이화의 뿌리를 찾아온 그들에게 역사관은 그리던 모친을 만난 듯한 추억과 감동의 장소가 되었다. 부모로부터 이어 받은 신앙이 몸에 밴 그들은 역사관에 들어서자마자 이화가 설립의 초심을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였다. 한 달이나 걸려 험한 태평양을 건너 의사인 아들과 함께 미지의 나라 한국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미국의 한 중년 여인 스크랜턴의 신앙과 결단을 들으면서 아버지 피도수선교사의 흔적을 추억해 내었다. 영은 씨는아버지도 선교사로 결단하시고 한국에 오실 때 배를 타고 오셨으며 어머니와 함께 한 살 배기 큰 딸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간 길도 그랬다고 했다. 이화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내려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두들 진지하게 사신 한 상 성경 한 구절 속의 의미를 서로 나누며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초창기 한국의 여인들에게 배움터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학문을 연마하여 여성 지도자를 길러낸 이화가 그들에게도 자랑스럽고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싶은 곳이었다. 마지막 여정인 기도실 앞에서 종(bell과 servent)의 리더십의 글을 읽고 영은씨의 부군인 목사님이 이화를 축복하며 그 사명을 다하기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였다.

이번 한국 방문에 1남 3녀와 한국인 며느리(Michelle Peters)와 두 사위, 손자 등 8명이 동행하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나라를 방문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이화역사관을 방문해 아버지 피 도수 선교사가 사역한 당시 한국과 어머니의 학교 초창기 이화의 모습을 보며 감회에 젖었다. 방문록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자신들의 이름을 적기도 하며 한국인의 피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흔적으로 남겼다. 피도수 선교사는 한국의 토착문화를 사랑하여 동양적 배경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성화를 그리는가 하면, 한국식 건축양식의 교회를 직접 설계, 건축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방문은 이화를 향한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추억이요 값진 유산임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글. 양지현(작곡 08)

알아두면 유익해요

갱년기 생리 불순, 방심하면 큰 병 된다

정혜원 (의학 84)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과장

얼굴이 창백한 42세 A여사가 산부인과 외래로 왔다. 5개월 전 정상적인 생리를 한 이후 계속 생리가 없다가 한 달 전부터 질출혈이 시작되었는데 4-5일 동안 대형 생리대를 2-3시간 간격으로 적실정도로 심한 출혈이 있다가 그 후 3-4일간은 줄어들고를 반복하면서 한 달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출혈이 멎으면 병원에 오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4일 전부터는 질출혈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지럽고 숨이 차서 일상생활이 힘들어 졌다고 한다.

A여사는 심한 빈혈이 있었고 부인과 초음파에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져 있어 조직검사를 했더니 자궁내막증식증으로 나왔다. 폐경기에 가까워지면서 월경이 불순해 지면서 규칙적인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주 일어나게 된다. 이런 부정출혈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 A 여사 같이 빈혈 등의 증세를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자궁내막증식증 혹은 자궁 내막암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먼저 이런 생리 불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정상 생리인지를 알아야 한다.

월경이란 원래 배아가 착상할 준비가 되어 있던 자궁내막에 태아가 착상하지 않게 되면 저절로 탈락되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정상 월경 주기는 평균 28일이며 월경량은 30-80cc 정도, 기간은 3-7일이다. 개인에 따라 또는 같은 개인에서도 주기에 따라 다소 짧을 수도 있고 길어 질 수도 있어 24일-35일 사이의 주기를 보이면 정상적으로 배란이 되는 여성의 월경 주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월경은 자신만의 월경 증상이 있다.

두통, 유방통, 변비, 구토, 부종증이 흔히게 있는 생리시기 근처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생리시

기 전후의 증상을 잘 감지하고 있다면 부정 출혈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더 빨리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기 쉽다.

A여사의 같은 증상은 40대 여성에게 흔히 일어나는 흔한 증상이지만 가끔 초경 전후나 젊은 여성들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달에 한번 잘 일어나던 배란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약해지면서 배란 후 나오는 황체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자궁내막이 불안정해 지면서 나타난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약물로 치료가 되는 만큼 생리가 다른 때와 다르면 병원에서 한번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의심해 봐야 하는 생리라면 7일 이상 지속되거나, 보통 때 2-3일째 많았다가 줄어드는데 계속 비슷한 양으로 나오는 경우 생리통이 있었는데 없는 경우, 평소보다 지나치게 양이 많은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생리가 멈춘 후 병원에 오려고 미루다가는 자칫 큰 병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이상이 감지되면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이라면 모두다 항상 자신의 생리를 기록해 두자.

양과 기간은 기본으로 거기에 자신만의 생리 증상을 살짝 기록해 두자. 많은 데이터를 주면 줄수록 병원에서 적은 검사로 완벽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 현명한 이화인은 이제부터 생리 이상을 큰 병으로 진행하기 전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과장.
전공- 생식내분비(불임 및 폐경크리닉 담당)
이화의대 교수 및 이화여대 다문화 연구소 부소장
전 이화 의료원 수련의, 이화 의료원 전임의,
이화의대 산부인과 주임교수,
미국 Stanford 의대 postdoctoral fellow 역임
산부인과 전문의

생활법률 필요해요

상속 제대로 받기

최 지 희
(법학01, 최지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한, 두 번은 상속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을 여읜 슬픔과 당황한 마음에 시간을 놓쳐 상속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다면, 나중에 불측의 손해를 당할 수 있다. 이는 망인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고, 눈물이 마르기도 전 상속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망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도 아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되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처, 子)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법은 상속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우선,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면 금융감독원의 본원이나 지원 등에 망인의 금융자산(예금, 대출, 보증, 보험, 카드내역 등)을 조회하고, 망인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망인 소유 부동산을 각 조회하여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특히 지방에서 살면서 거주지를 크게 벗어난 일이 없으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의당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은 여기 땅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고 생각하고 상속문제를 대충 해결하고 넘어가는데, 수 년이 흐른 뒤에 타인(제3자, 타인 등)으로부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원인무효에 기한 반환 소송 등 불측의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하여 둔 재산을 10년이 지난 뒤에 발견하였지만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를 당하기도 한다. 특히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뒤에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 상속재산을 확인한 경우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빚)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자의 채무(빚)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 포기는 일단 상속인을 위해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해당기간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서, 포기를 하려면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여 각각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자에게 자동으로 상속되게 되므로 너만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여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니 포기 시에 법정상속순위자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포기하여야 한다.

한편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심판결정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히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 후 3개월이 훨씬 지나 전혀 알 수 없었던 채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채무 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하기 전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정리하고 떠나고 싶어하지만 죽음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므로 재산관계 등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에 따른 책임은 가족(상속인)이 져야 제3자와 다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대로 상속문제를 처리하여 재산관계만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을 잘 알아 두면 좋을 것이다.

대학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약학대학

회장/ 정준순(약학72)

제 50회 정기총회 개최 및 '주홍장학회 30년사' 발간

2013년 9월 26일 정기 임원간사회를 아시아 루안에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정준순 회장은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기 대표들의 역할이 크므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하였고 이정자 주홍장학회 운영위원장은 수혜자 중에서도 후원금이 나온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제50회 정기총회 및 졸업 50주년 새상봉축하식이 10월 28일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려 239명이 참석하였다. 제1부 기념식에서 정준순 동창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들이 은혜와 축복이었으며 약대건축기금 모금에 놀랍도록 모교사랑을 증명해주시고 특히 올해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34회가 9천백여만 원의 기금을 후원해 감사하다' 는 인사를 하였다.

이경림 학장의 격려사와 올해의 이화인과 상을 받은 동창에게 축하패와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이정자 주홍장학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장학금 수혜자 143명, 지급된 장학금 총액이 1억8천만 원이 된 주홍장학회 30주년을 기념하여 '주홍장학회 30년사' 발간을 보고하였다. 14회의 졸업50주년 재상봉 축하식에는 백난기 대표가 인사와 축하의 노래를 하였으며 문화부 합창단의 담가도 있었다.

제3부 총회에서는 동창회 경과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각 부 보고가 있었고 제4부 행복음악회에서는 김정택 SBS예술단장과 인치엘로 남성 4중주단의 공연을 감상하였다. 이어 고문단회의에서 차기 제29대 회장으로 정용희(26회),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였다. 이 날 동창회 발전기금과 주홍장학회, 약연후원회 후원금이 전달하였다.

자연과학대학

회장/ 변희숙(생명73)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및 야유회 개최

2013년 9월 30일 양지cc에서 개최한 제3회 자연과학대학동창회장배 골프대회에서 5개 팀 중 수학과가 단체우승을 차지하였다.

10월 21일에는 님이심에서 열린 가을 야유회에 총 172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시골 보리밥 점심식사, 이재창, 이미혜 동창이 진행하는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기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였다. 원로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후배 동창들에게 참석동기 유발의 계기가 된 이 날, 동창들은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2014년도 계속 갖기로 약속하며 아쉽게 가을 야유회를 마쳤다.

또한 11월 4일에는 '마리' 에서 2013년의 마지막 정기임원회를 갖고 2014년 상반기 동창회 사업을 토의하였다.

조형예술대학

회장/ 남은숙(생미 80)

이화인의 밤 행사에 공예품 전시 및 판매

2013년 11월 25일 총동창회가 주최한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동창회 녹미회가 동창 작가들의 작품과 공예품 전시 및 판매를 기획하여 행사에 참석한 900여명의 이화 선후배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였다. 서양화, 동양화, 조소, 도자예술, 섬유예술, 생활미술, 장식미술(패션디자인, 공간디자인 전공)의 각 전공 작가들이 모여 회화, 조각, 공예, 패션소품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녹미회는 이 행사기획을 통해 이화인의 밤 행사 경품 지원과 함께 수익금의 일부를 총동창회에 기증하였다.

과·학부 소식

가나다 순으로 게재

기독교학과

회장/ 김미순(75)

3회 째 맞는 선후배 만남 양평에서 가져

2013년 10월17일 향기나는 뜰 크리스천 카페에서 8기부터 동창회에는 처음 참석하는 25기까지 선후배 20여명이 만나 서로를 소개하고 우정을 나누었다. 1년에 한번, 3회 째를 맞는 이번 모임으로 모교 발전과 동창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되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행복한 하루여행이었다.

경영학과

회장/ 손향아(81)

이화경영 창립 5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2013년 11월1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그동안 이회 경영을 위해 수고한 내외빈

과 함께 새로운 반세기의 도약을 다짐하는 뜻 깊은 '창립 기념 콘서트' 가 성황리에 열렸다. 박성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양명수 교목실장의 기도와 김성국 경영대학장의 환영사, 손향아 경영학과 동창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옥순(2기), 오은영(4기), 서지희(18) 경영학과 동창과 이영희 연합회 회원, CEO 겸임교수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이어서 변진호 경영학부장의 경영학과 발전현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또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이화경영의 노래' 가 김효근 교수에 의해 작사, 작곡되어 이화경영 중창단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어 큰 감동을 안겨 주었으며, 후배들에 의해 '이화경영 50주년 어제와 오늘' 이 동영상 제작되어 상영될 때에는 그동안 성장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학창시절의 추억과 향수로 흠뻑 빠지기도 하였다.

독어독문학과

회장/ 이정화(74)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총동창회에 전달

창립 50주년을 맞아 2013년 10월 31일 ECC 이삼봉 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총 220여 명의 과 졸업생과 재학생을 비롯하여 5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김선욱 총장, 이재돈 인문대학장, 조종남 총동창회장, 독문과 명예교수와 현 교수진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이정화 회장을 중심으로 '독문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독문과의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준비되었다. 모든 행사는 독문과 졸업생과 재학생, 최성만 과장과 교수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 축하공연 역시 재학생들과 교수들이 독일어 연극, 피아노 연주, 독일시 낭송 등으로 진행하여 더욱 감동있는 자리였으며 '추억을 따라 50년'이라는 동영상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한편 이 날 50년을 이어오면서 과 발전에 공로가 큰 선배들께 감사패를 증정하였고 추억담도 들었다. 특히 김정옥(69, 김희경 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이사장) 전 건국대 교수는 2003년부터 매년 재학생 10인에게 독일 괴팅엔대학 어학연수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어 2013년까지 총 1억 9천만 원의 장학금이 110명의 수혜자에게 지급되었으며 안윤정(69) 앙스모드 대표의 장학금과 선배라면장학금, 교수장학금 등 과 장학금 총액이 4억 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원로 선배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 간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아진 기금을 총동창회가 모금하는 '이화 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으로 전달하여 다시한번 독문과의 '이화 사랑' 을 알렸다.

동양학과

회장/ 이숙진(85)

제 32회 채연전, 이화소동전 및 총회 개최

채연전을 2013년 9월 23일~27일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총 77명의 동창이 참여한 가운데 이규선, 오용길 명예교수와 오숙환 조형예술대학 학장, 김보희, 이종목, 서은애 교수를 모시고 뜻깊게 진행되었다. 이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중 두 점을 선정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제 32회 채연상에는 이은영(78), 정혜정(98) 동창이 수상하였다.

조선화랑과 동창회가 함께 기획한 이화소동전이 코엑스 조선화랑에서 구랍 3일~12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어린이 재단에 전달하여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힘을 보태

주고자 마련된 전시로 75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또한 구랍 3일 코엑스 위즈잇에서 21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동양화과 총회가 개최되었다.

불이불문학과

회장/ 강숙희(74)

'2013 아름다운 불문인의 밤' 행사 개최

2013년 10월 16일 불문과 아미간사 정기모임을 '필름포럼' 에서 열었다. 아미 17기 배혜화 동창의 주선으로 명화 감상(블루쟈스민 관람)을 하였고 영화감상 후기도 나누는 따뜻한 만남을 가졌다.
11월 28일에는 이대 생활문화관 소극장에서 '2013 아름다운 불문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재학생, 졸업생, 전, 현직 교수 등 모든 불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학생들의 시 낭송과 연극, 합창단 공연, 퀴즈쇼와 질의응답 시간 등을 함께 하며 2013년을 즐겁고 정겹게마무리하였다. 한편 이 날 격려사를 한 강숙희 회장의 수필 '우리 모두 세월의 품 안에 있음을' 이 이대동창문인회에서 발간한 '기억의 정원' 에 실려 출간 되었다.

사학과

회장/ 한혜련(75)

공주 마곡사 등 가을 정기답사

2013년 10월 24일 충청남도 공주 일대에서 가을 정기 답사를 하였다. 봄, 가을로 동창회에서 일년에 두 차례 하고있는 이번 가을 정기 답사는 마곡사, 공주 박물관 등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 날 답사에 참가한 동창들은 산사의 고즈넉함과 가을 단풍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학창 시절 답사에 얽힌 추억도 이야기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1월 28일 석란에서 열린 간사회에서는 각 기의 간사들이 모여 지난 한 달 동안의 활동 보고와 앞으로의 동창회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섬유예술과

회장/ 김옥광(80)

섬유악세서리 세미나 및 동창전시회

2013년 10월 2일 기대표 모임을 위한 섬유악세서리 세미나를 봄에 이어서 2회로 개최하였다. 김옥광 회장 자택에서 박정례, 이명희, 배은미, 김옥광, 장수

연, 조경은 동창 외 여러 명이 모여 전서윤 동창을 강사로 금사, 은사를 이용하여 비즈를 엮어 금속판이나 천에 붙여서 반지, 브로치, 귀걸이 등을 만들었다. 또한 섬유예술과를 졸업하고, 디지인 대학원을 졸업한 동창들을 중심으로 10월 30일~ 11월 5일까지 인사동 한국공예진흥원 전시실에서 텍스타일 디자인전을 개최했다. 오픈식에서 차영순 교수의 격려사와 김옥광 동창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참여 디자이너는 김보민 동창 외 여러 명이다.

생활미술과

회장/ 이혜경(82)

2013 Visual Message 전시회 개최

2013년 11월 25일 총동창회 주최 '2013년 이화인의 밤' 행사장에서 가진 조형대 동창들의 작품 전시 및 판매에 정용순, 이혜경(82), 차정인(83) 동창 등이 참여하여, 브로치와 스카프 등의 염색작품과 크리스마스 리스, 카드, 인형과 쿠션 등 의미 깊은 작품들을 동창들이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올해로 31주년을 맞이한 비주얼메시지 전이 구랍 18일 인사동 '갤러리 이즈' 에서 오프닝하였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Present' 로, 연말을 맞이한 Paper bag을 선보였다. 주제 ' Present' 의 의미가 '선물' 혹은 '현재'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시각, 산디, 영상 전공의 동창들이 선보이는 것이니 만큼 의미있는 전시로 평가받았다.

영어교육과

회장/ 이미옥(79)

50주년 행사 앞서 정기모임에서 50Km 걷기운동 제안

2014년 11월2일 '경복궁' 에서 14명의 기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활동보고와 함께 신임 기대표들의 소개 발표가 있었으며 총동창회 바자회에 봉사한 동창 14명과 쥬얼리를 협찬한 박춘서(76,마리보석 대표) 동창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특히 이 날 2014년 9월 25일 과 창립 50주년기념행사를 앞두고 동창회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 을 받았다. 많은 제안 중 8월까지 월 1회씩 10회에 걸쳐 50Km 걷기운동 '50키로 고고고' 을 정하고 11월 23일 장춘단공원에서 모여서 남산 둘레길을 걸었다. 앞으로도

매월 넷째주 토요일 선후배가 만나 5Km씩 걷기를 계속할 예정이다.

영어영문학과
회장/ 김원정(75)

추계강좌 개최 및 장학생 후원 결정

2013년 11월 14일 삼성교육문화회관 806호에서 월간 '디자인', '행복이 가득한 집' 등 10여개의 잡지를 발행하는 '잡지의 여왕' 이영혜 대표의 우리생활의 디자인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140여명의 동창이 모여 디자인 역사의 변천과 트렌드에 대한 유익하며 동감이 되는 강의를 듣고, 점심을 함께하며 그 동안 못 만났던 동기들도 만나고 정감을 나누었다. 한편 동창회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결식아동 후원이 정부의 일괄적인 후원으로 불필요하게 되어 2014년부터는 2명의 장학생을 선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식미술학과
회장/ 김인경(85)

공간디자인 전공 동창 전시회

2013년 12월 2일~ 7일까지 문화와 예술적 감성을 담은 공간디자인, 공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테리어디자인 교육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 전공 동창들이 모여 전시회를 했다. 인테리어, 건축의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후배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회화 사진 민화 플라워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의 영역을 넓힌 동창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지하 1층 넴스 스페이스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작품 패널, 1층에서는 조명으로 연출한 전시장 홍보 및 환영의 메시지, 2층에서는 음식과 플라워, 회화 민화 사진 등의 작품을 볼 수 있었고 3층은 넴스의 주방가구와 어우러진 공간 연출이 feel the nature의 주제로 표현되었다. 그동안 공간디자인 전공 동창회는 발전기금을 모아 작고 교수 추모행사와 후배 장학금 전달, 동창들의 교류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지속해 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조소과
회장/ 심인자(74)

이화조각회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수여

2013년 11월 23일 인사동에서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2014년 총회를 위한 사항 및 새로운 임원진들을 논의, 결정하였다. 특히 2013년도 조소과동창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4학년 김다슬 학생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져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동창회는 매년 실기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초등교육과

회장/ 박정서(81)

송년모임에서 동창회보 '이화초등' 배부

2013년 11월 28일 압구정 샤브샤브에서 동창 송년모임을 가졌다. 제8대 동창회장을 지낸 설옥희 동창, 광성드림학교의 김세향 교감, 운현초등학교의 박정희 교장, 창림초등학교의 박란희 교장, 상명사대부속초등학교의 이화자 교장, 이대부속초등학교의 구순옥 교감을 비롯하여 공사립 현직에 있는 선후배 교사 동창들 40여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많은 동창들이 고위 행정직 영전을 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했고 8월에 정년퇴임 한 조연순 교수도 참석하여 반가움을 더하였다. 이 날 '이화초등' 제19호를 각 기대표들에게 배부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교원 임용고시가 있었던 11월 23일에는 고사장이었던 자양중, 자양고, 무학여고 앞에서 초등교육과 교수들과 재학생 30여명, 동창회 임원들이 간식을 나눠주며 응원하기도 하였다.

환경공학과

회장/ 나유미(97)

환경공학과 창립 20주년 기념식

구랍 6일, 이화 ECC 이삼봉홀에서 환경공학과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더 큰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려 300명의 내외빈과 동창들이 함께 자리하여 서로 축하를 나누었다. 1993년 이화의 선각자들은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학문 개척을 과감히 시도하여 수많은 우수 환경 인재와 연구 업적을 이화의 이름으로 배출하였고, 국내 대학 환경공학분야에서 최고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자랑하게 되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이화여대 환경공학 3년 연속 최상위 등급' 이라는 타이틀로 입증받았고 특히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동창들이 많아짐으로써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해외 지회소식

가나다 순으로 게재

남가주지회

회장/ 장계원(도서 76)

2014년 출범 새 회장단 선출 및 총장과의 만남

2013년 9월 4일 사간 카페에서 김정순 회장, 박화자 이사장 등 15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가 열렸다. 임원회에서 동창회 회칙, 동창회 60년사의 독립적 운영 및 운영위원 선정 등이 이사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이어 9월 12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2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후 2014년 신임 회장에 장계원(도서 76), 이사장에 김주경(관현 77) 동창을 선출하고 염정자(영문 60), 박신화(기독 70) 동창을 새 이사로 영입하였다. 9월 27일에는 Los Coyotes Country Club에서 김선욱 총장과의 반가운 만남을 가졌고 10월 24일 워싱턴DC에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는 22명이 참석하여 총 36개 지회 중에 최다수 참석을 차지했다. 탈렌트 쇼 경연대회에서도 화려한 의상과 유연한 동작으로 하와이안 댄스를 선보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뉴욕지회

회장/ 박문순(사학 66)

중, 북부 뉴저지 모임 및 연례만찬회 개최

2013년 8월 17일과 9월 25일, 지역모임 중 하나인 중부 뉴저지, 북부 뉴저지모임이 있었다. 김활란 총장님의 활약상과 초기 미국 유학생활에 대해 장혜원(약학 50) 동창의 설명이 있었으며 정담을 나누는 시간도 되었다. 또한 세종문화재단 연수차 뉴욕을 방문한 모교 유아교육과 유기숙 교수팀을 맞아 박영숙(경영 86) 동창이 운영하는 '반주'에서 초청모임을 가졌다. 10월 10일 정기 모임 후 18일에는 김선욱 총장께서 The Korea Society 초청으로 'Women's Leadership and Higher Education in Korea'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여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특강을 들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하여 각 지부별 장기자랑에서 영화 'Sound of Music'을 재해석한 fresh mob 형식의 춤으로 작년에 이어 2등상을 수상하였고 11월 8일 DoubleTree 호텔에서 130여명의 동창과 이화사위가 모여 연례만찬을 성황리

에 개최하였다.

뉴질랜드지회

회장/ 권명혜(교육 80)

신임 회장단 선출과 함께 '동창' 알아가기 ' 시간 가져

2013년도 4차 모임이 10월 8일 Chang Thai 레스토랑에서 있었다. 지난 4년간 지회를 이끌었던 문정아 회장과 임원진들이 임기를 마치고, 향후 2년을 수고할 신임 회장에 권명혜 (교육 80), 부회장에 이보아 (종교음악 85) 동창이 선출되었다. 9월과 10월에 생일을 맞이한 동문들의 축하파티도 있었으며, 특히 ' 동창 알아가기'의 순서로 조원희(건강교육 77), 심현기 (국문 79), 윤희자(시청각 79)에 대한 궁금한 점과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13년을 보내는 송년모임을 12월 7일 이성혜 (장미 72 동창)이 운영하는 Hawthorn Dene Historic Cafe에서 모여 한해를 돌아보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다.

보스톤지회

회장/ 김희선(법학 77)

이디오피아 선교비 및 모교 장학금 지원

2013년 10월 17일 모임에서는 북미주지회연합회총회에 참석하는 고영복(영문 61), 김경애(의학 70), 최경(조소 74), 김희선(법학 77) 동창을 격려하고 이디오피아의 장은혜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책을 주는 프로젝트를 돕는 선교비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동창들이 조유니(성악 90))동창의 합창 시도 덕분에 탈렌트 쇼에 3등을 하여 금일봉을 받았으며 그동안 국제재단에 보낸 장학금이 10만 달러를 넘어 2015년부터 모교에 지희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부산지회
회장/ 심상애(사회 75)

38년간 개최해온 '이화인의 밤' 행사

지회가 주최하는 '2013 이화인의 밤' 행사가 12월 3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12월 첫째 화요일에 열리는 재부 "이화인의 밤"은 1976년 이래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개최되었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180여명의 동창들이 모여 우정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1부에서 참석 동창 소개와 심상애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선욱 총장과 조종남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많은 동창들의 축하 인사말이 영상으로 상영되었다. 2부는 KNN방송 정희정(성악 05)아나운서의 사회로 장기자랑과 경품추첨, 흥겨운 율동과 합창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3년은 특히 지회가 제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화동창 찾기 운동' 을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취미동아리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새해에는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동창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세인트루이스지회
회장/ 정선주(성악 68)

지회 출범 17년, 새 임원단 선출

지회가 출범한 지 17년 째로 33명의 동창들이 1년에 4번 정기모임을 하고, 특히 12월 모임은 부부 동반으로 모인다. 또한 매달 모이는 신선미 모임(계모임)을 통해서 친목을 쌓아가고 있으며 2013년 5월 정기모임에서 새 임원으로 회장 정선주(성악 68), 서기 최길자(화학 65), 회계 이수자(가정 63) 동창을 선출하였다.2013년 8월, 9월 모임에서는 최경선 동창이 준비한 신장현(교육 57) 박사의 영문집필서 '이화여대 국제재단 40년 역사' 를 본 동창들이 새삼 김활란 전 총장께서 50년, 60년을 내다보았던 통찰력에 감탄하며 감사해 했다. 10월 모임은 동창 보고와 한인회 청소년을 위한 장학기금, 불우이웃 돕기, 총동창회 회비, 모교 선교부 헌금 등의 사업보고를 하며 이화동창으로서 모교 발전을 기도하였다.

시애틀지회
회장/ 김채순(초교 71)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연례 바자회 개최

2013년 9월 15일 이화국제재단 장학금 송금 및 2012년부터 시작한 지역 장학금 기금모금을 위한 연례 바자회를 김채순 회장 자택에서 열었다. 밑반찬과 수예품은 기증을 받았고 임원, 동창들이 함께 2주에 걸쳐 만든 만두 1000개와 김치, 깍두기 38병 등과 바

자회 당일 10파운드 상당의 빈대떡을 만들어 판매한 이 날 바자회로 2000달러 이상의 순익이 있었다. 온종일 힘은 들었지만 이화사랑을 실천한 하루였다. 9월 19일은 문화부 주관으로 Edmonds 에서 10여명의 동창들이 함께 미술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10월 24일부터 4일동안 개최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김채순 회장, 백신자 이사, 박정혜, 유명순 동창 등이 참석하였다.

싱가포르지회

회장/ 현수정(생미 88)

다양한 취미 활동 모임으로 친목 도모

햇빛이 유난히 화사했던 2013년 11월 7일 예(藝)와 미(昧)가 공존하는 전시 공간으로 익히 알려진 갤러리 레스토랑 7 Adam에서 동창 모임을 가졌다. 한국 현대미술 작가 7인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는 특별한 일정으로 신입 동창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그동안 동창들 친목 도모를 위해 트래킹 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회가 싱가포르 복지 기관과 로타리 클럽이 함께 주관한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쿠슈 아일랜드 피크닉' 행사에 재싱 이화동창회 이름으로 2천 달러를 후원했다.

아틀란타지회

회장/ 김정희(약학 79)

각종 골프대회 행사 및 '배꽃들의 향연' 송년회 열어

2013년 9월 가을단풍과 함께 시작한 '이화여대 총장배 골프대회' 가 이화여대 골프회 주최로 열렸다. 43명이 참가하여 그동안의 쌓았던 실력을 발휘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영예의 총장배는 정문자 동창이 탔다. 격주로 모이는 합창반에서도 '합창단기금 마련 골프대회' 를 열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는 성정순, 조성숙, 조윤정, 정문자, 김정희, 오은정, 조수헌 동창 등이 참가하여 이사회 및 국제재단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재단에 2000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송년파티 '배꽃들의 향연' 행사에는 부부, 가족이 함께 80여명 참가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다. 특히 이번 파티의 주제는' 이웃사랑의 실천 '으로 후원금과 경품티켓 판매금 일부가 불우이웃을 도울 예정이다.

워싱턴지회

회장/ 오혜경(영문 72)

2년 여 준비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성황리에 개최

2013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개최를 위한 임원회의를 9월 14일 안해영(약학 80) 동창 자택에서 가진 후 마지막 점검을 위한 임원회의를 10월 20일 유연담(정외 62) 동창 자택에서 다시 열었다. 이날 그 동안 뒤에서 물심양면 지원해 준 이화 사위들도 함께하여 약 30여명의 동창 가족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지며 '화이팅!' 을 외쳤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지난 2년여에 걸쳐 준비해 온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및 국제재단 총회를 Hilton McLean Tysons Corner에서 김선욱 총장 및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참석하에 개최하였다.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주 전역에서 온 300여명의 동창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구랍 1일에는 총회 및 연말파티를 열어 현 김지완 부회장(도서 89)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영주 전 회장(간호 72)을 2014년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인천지회

회장/ 박명선(무용 76)

적십자 빵굼터 봉사하여 미혼모 보호소에 전달

2013년 11월 23일 적십자 빵굼터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로 파운드케익을 만들어 미혼모 보호소에 전달하였다. 10월 23일에는 이민사 박물관 이명숙(국문)관장의 초대로 한국 근대 이민사의 자취를 볼 수 있는 이민사 박물관을 탐방하였다.

인천지회는 매달 23일을 동창회 날로 정하여 40년째 지속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자카르타지회

회장/ 강혜경(간호 77)

인도네시아 한인미협 전시회에 동창 작품 전시

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하게 된 인도네시아 한인미협이 2013년 10월 23일~29일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회

를 개최하였다. 협회 회장인 이은수(동양화 78) 동창과 임수경(동양화 90) 동창이 참여한 이 전시회에 많은 동창들이 방문하여 축하하였다. 한편 10월 31일에는 Pondok Indah Mall 'The Duck King' 에서 정기모임을 열고 회갑을 맞은 민경례(불문 76)동창 축하연을 함께 하였다.

청주지회
회장/ 윤미숙(물리 83)

모처럼의 가을 정취

2013년 10월 14일 가을 야유회를 남이섬과 아침고요수목원 등에서 가졌다. 오랜만에 가진 이 날 야유회에 참석한 동창들은 모처럼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선후배 간의 우정을 나누었다.

파리지회
회장/ 송미영(불문 76)

선후배간 정 느끼게한 송년회 가져

구랍 7일 파리 14구에 위치한 '수라' 에서 이화동창 송년회를 가졌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며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고 그동안의 소식과 안부를 묻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선배들께서 들려주는 이화의 전통과 옛 모습을 들으며 해외 동창들 간에 따듯한 정을 느낄수 있었다.

홍콩지회
회장/ 정도경(사회복지 81)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회비 모금

2013년 11월 14일 이수영(영교 88) 동창의 초청으로 차이나클럽에서 풍성한 오찬을 나누며 총동창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모금하였다. 이 날 방혜자(교육 66), 이명희(무용 68), 정도경(사복 81)은 각각 홍콩 5000불씩을 기부했고, 그 외 장은명(영문 69 입학) 동창도 홍콩5000불을 기부하였다. 총동창회에 회비 송금을 책임 맡은 한정화(섬에 94)총무를 비롯한 나머지 15명 동창들도 각각 홍콩 200불(3만원)을 총동창회비로 납부하였다. '총동창회 발전에 우리 동창들이 조금이라도 기여한다' 는 의미에서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동참하자는 정도경 지회장의 한마디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부하였고 12월 모임은 방혜자 동창 초청으로 아메리칸클럽 중식당에서 가졌다.

모교소식

대한민국 최초 '이노베이티브 스웨덴' 행사 개막

스웨덴의 혁신을 한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해 한국 최초로 마련된 '이노베이티브 스웨덴(Innovative Sweden)' 행사가 2013년 11월 11일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개막식을 갖고 20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모교와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대외홍보처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스웨덴성장정책청, 스웨덴혁신청이 참여하는 세계 순회전으로 2011년 시작된 이래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 각국에서 개최돼 4만명 이상이 관람한 행사다. 한국에서는 모교에서 최초로 진행되었으며, 전세계 파트너 중 대학으로 모교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개막식에서는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이 축사를,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와 아니카 렘베 스웨덴 대외홍보처장이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했으며, 세계 순회전 및 참가 혁신 기업 소개, 개막 리셉션, 사진공모전 시상식 등이 열렸다.

예일대 총장 취임식 특별 초청 및 북미 아이비리그와 교류 확대

김김선욱 총장이 2013년 10월 13일 미국 예일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피터 샐로베이(Peter Salovey) 제23대 총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예일대학 측은 한국에서는 국내 최고이자 세계 최대 여자대학으로 이화여대의 명성을 인정하고, 김선욱 총장을 글로벌 예일 가족의 한 명으로 특별 초청했다.

김 총장은 취임식에 앞서 피터 샐로베이 총장과의 만남을 갖고, 여성교육 분야를 비롯한 글로벌 교육 분야에서 양교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모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국제하계대학 등을 알리고, 체계적인 학술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이화-예일대학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양교는 2014년 7월 모교에서 한국 문학을 주제로 한 '이화-예일 공동 워크숍(The Ewha-Yale Joint Workshop)'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2일에는 코넬대학과 교류 협정을 갖고, 교수진의 교류와 연구 · 학술 자료 교환에 합의했다. 협정의 주요 내

용에 따라 모교는 한 학기 동안 한국학, 한국 정치, 경제,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교 교수를 코넬 대학에 파견해 한국학 관련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교는 인적교류의 토대 위에 다양한 학술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솔베이 1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벨기에 교류 협력 강화

2013년 10월 9일 김선욱 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의 솔베이그룹(Solvay Group) 본사에서 열린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화여대-솔베이 간의 학술 국제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솔베이그룹은 창립 150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솔베이의 성과를 경축하고,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벨기에 국왕과 왕비 내외를 비롯, 전세계 유력 파트너 1,000여명의 인사를 초청했다. 이 중 한국 파트너로는 모교가 선정되었으며, 한국인 초청 인사로는 김 총장이 유일하다.

또한 김 총장은 솔베이 일정 외에도 벨기에 주요 대학을 방문하며 본교의 유럽권 교류 확대를 위해 겐트대학을 찾았다. 겐트대학은 1817년 네덜란드 국왕 윌리엄 1세가 설립한 국립대학으로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다. 이어 브뤼셀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브뤼셀 리브레 대학교(VUB, Vrije Universiteit Brussel)를 방문해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VUB는 1834년에 설립된 이래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연구중심대학이자 국제적인 대학으로 생명과학 분야에 특화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13회 김옥길 기념강좌 '시장사회를 넘어: 공동체 경제와 젠더' 개최

2013년 11월 22일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제13회 김옥길 기념강좌 '시장사회를 넘어: 공동체 경제와 젠더'를 개최했다. 모교 한국여성연구원(원장 김은실)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강좌는 '시장사회를 넘어: 공동체 경제와 젠더'의 주제 아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서의 다양한 공동체 경제를 살펴보고, 향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경제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다양한 경제적 실험을 발전시켜온 실천적 학자인 캐서린 깁슨 교수가 특별강연자로 '경제를 반환하라: 공동체 경제 구성을 위한 윤리와 방법들'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으며 강연 후 공동체 경제 실현을 위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 '새로운 공동체 경제의 실험들'이라는 주제의 패널 시간을 통해 윤정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텃밭 사무장, 최순옥 열린사회 시민연합 은평시민회 공동대표, 박현숙 지역품앗이 한밭레츠 사무국장,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고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각 발표자들은 소속된 공동체의 현황 및 미래 가능성을 전망했다. 패널 발표 후 대화의 시간에는 장필화

모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과 김은실 한국여성연구원원장 등이 포럼의 주제 발표를 토대로 한국 및 글로벌 경제의 대안으로 공동체 경제에 대해 의견과 논의를 하였다.

이화가족 성탄예배, 소통과 공감의 시간

구랍 5일 대강당에서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성탄예배인 '이화가족 성탄예배' 가 열렸다.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성탄예배는 김선욱 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정의숙 전 이사장, 조종남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이화의 교직원과 재학생, 동창, 지역주민 등 2,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명수 교목실장의 인도로 진행된 성탄예배는 찬송과 '이화가 드리는 기도' 에 이어 박신화 교수의 지휘와 신지화 교수의 독창, 음대합창단과 이화국악관현악단의 협주로 '오 거룩한 밤' 이 연주되며 문을 열었다.

성탄을 축하하는 특별한 연주와 이벤트도 마련되어 음대합창단(지휘 박신화 교수)은 나이지리아 캐롤인 '베텔레헴무' 를, 이화국악관현악단(지휘 원영석 교수)은 '오색 타령'을 연주하였고 이화부속유치원 어린이들이 성탄모자를 쓰고 성탄축하 캐롤을 불렀으며 산타복장을 한 재학생들이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였다.

특별 헌금시간에는 총동창회 선교부가 헌금송을 하는 가운데 헌금하였으며 이 헌금은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화 동창 선교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13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학생처 사회봉사팀이 2013년 11월 13일 이웃 사랑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는 '2013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

다운 세상'을 개최했다. 13회를 맞이하는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 자원봉사자 150여명을 비롯하여 교직원, 서대문구 지역 자원 봉사자 등이 참가했으며, 김선욱 총장과 문석준 서대문구청장, 조종남 총동창회장 등도 김장 담그기에 앞장서며 봉사활동에 참가한 이화인과 지역주민들을 격려했다. 이외에도 10월 28일~11월 5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활동을 통해 모은 성금을 서대문구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한다.

아프리카 여아(女兒) 학교 보내기에 모교가 앞장

모교는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손을 잡고 가사노동과 조혼 등을 이유로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된 아프리카 여성 아동의 학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2013년 11월 15일 본관과 ECC 밸리에서 '스쿨미(School Me)' 캠페인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과 캠페인 선포 행사를 갖고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교는 학생 참여, 산학 연구, 현장 교류, 홍보 활동(캠페인 활동 참여, 여아교육 공론화, 인식개선 캠페인)분야에서 협력하며 캠페인은 세상 모든 여아들이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당당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여자 아동 3만 5천여 명을 비롯한 6만여 명의 아프리카 4개국(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우간다)의 아동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협약식에 이어 ECC 밸리에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이화의 종' 세레모니가 진행됐다. 이화의 종은 1920년대 이화여대가 종합대학으로의 성장을 꿈꾸며 서울 정동에 있던 캠퍼스를 지금의 신촌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며 당시 24세였던 김활란 전 총장이 북미 지역을 방문, 종을 울렸던 데에서 기인한다.

동창소식

졸업 연도 순 게재

홍은혜(음악 39)

2013년 10월 30일 코엑스에서 평생 대한민국 해군을 위해 봉사한 공로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수여하는 제 46회 '용신봉사상'을 수상하였다.

김태련 (심리학 60)

이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아이코리아 김태련 회장이 '2013 베스트비디스 코리아 활동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아이코리아, 베스트버디스 'Best Outstanding Chapter Award'를 수상하였다. '서울시 동남권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를 개설한 김 동창은 미국 한미특수교육센터와 MOU를 체결하였고 '불우 여성 돕기 사랑나눔 숲속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정춘자 (약대 60)

시인인 정 동창이 2013년 가든그로브 시에서 수여하는 봉사상인 'Garden Grove Chamber of Commerce Women 's Devision Silver Spoon' 상을 수상했다. 2000년 물방울 선교부를 설립하여 노숙자를 돌보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 동창은 양로병원 방문, 탈북자 도움, 장학금 마련 등에 동참하며 봉사하고 있다.

박동순(영문 62)

동서학원 이사장, 총장을 역임하고 부산어머니그린운동 본부 총재인 박 동창이 2013년 10월 30일 코엑스에서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 운영 등 여성교육 발전에 힘써온 공로로 제 13회 '김활란 여성지도자 상'을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수상하였다.

오민자 (미술 63)

2013년 9월과 10월에 시카고 근교의 화랑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국전 입선 작가인 오 동창은 위스컨신대학에서 미술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매년 전시회를 열고 있고 'The Marin Society of Artists' 전시에서도 입선하여 상을 받았다.

이정자 (기독 66)

(사)한국시조문학진흥회 이정자 이사장이 2013년 10월 12일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가을 학술 세미나에서 이태극론, '월하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회한'을 발표했다.

윤시향 (목문 68)

원광대 윤시향 명예교수가 2013년 11월 3일~ 12월 8일까지 열린 '제13회 2인극 페스티벌' 의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2000년부터 시작한 '제13회 2인극 페스티벌' 의 주제는 '변화와 융합' 이다.

성기순 (섬예 69)

성 동창이 미국에서 개최된 제 6회 전국민화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아 미주의 민화 위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은주 (영문 69)

구랍 3일 경기대 최은주 명예교수가 제 4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최 교수는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도서관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노정자 (섬예 68)

2013년 11월 19일~11월 25일 이스턴 베니비스에서 유화 작품과 자수작품을 선보이는 '부부전' 을 열었다.

박영신 (영문 71)

도예강사인 박 동창이 미국 플러톤과 한국 용인 분청도자기 교류전시회를 준비하여 2013년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국 용인의 경기도 박물관에서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여 호평을 받았다. 박 동창의 작품은 AMOCA 박물관(399 N. Garey Ave., Pomona)에서 구랍 29일까지 전시하였다.

변정원 (불교 73)

대하소설 '태백산맥(조정래 작)' 불어 번역으로 지난 2009년 프랑스진흥협회가 수여하는 '황금언어상' 을 수상한 변 동창이 인터넷 매체인 '파리 한불통신' 객원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고정희 (장미 74)

일본 관동지구의 유일한 민족학교인 동경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화가로 활동하였던 고 동창이 2013년 9월 27일 37년간 재직한 동경한국학교에서 퇴임하고 일본 학교법인 KCP일본어 학교, 한국 (사)한구교육문화원의 동경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연아 (신방 76)

수필가인 주 동창이 2013년 6월 '이대동창문인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년 임기로 취임식은 2014년 3월 1일이다.

이화순 (사학 77)

IT업계 여성 사업가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저술활동을 하

는 이 동창이 2013년 10월 '당신을 닮은 사람들(민속원)'을 발간하였다.

조한희 (과교 77)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관장이며 대전보건대 교수인 조 동창이 제2회 영월국제박물관포럼에서 '박물관 마케팅 방향과 과제',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동창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관장 Alec Coles)과 MOA 체결식을 하며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민자 (피아노 78)

2013년 9월 공모전에서 '책가도 8폭 병풍'으로 특선한 김 동창의 작품들이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전시되었다.

임영란 (조소 78)

화가인 임 동창은 2013년 9월 24일~10월 7일까지 부산 수가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박은주 (섬예 79), 전경화 (섬예 89)

2013년 10월 3일~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각각 개인전을 열었다. 박 동창은 섬유의 질감을 유화로 표현하였고 전 동창은 실로 표현한 조형작업을 선보였다.

손려심 (영어교육 79)

미국 죠지타운대 MBA 후 외국계기업 마케팅 전문가였던 손 동창이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현재 삼성동소재 법무법인 SN에서 일하고 있다.

김영란B (조소 80)

2013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파란네모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채성숙 (동양화 82)

2013년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고영림 (불문 84)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를 설립한 고 동창이 2013년 11월 15일~17일 제4회 '제주프랑스영화제'를 '사랑해, 파리'라는 주제로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박유아 (동양화 84)

2013년 9월 12일~10월 13일까지 옵시스아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고혜련 (사학 85)

미술사를 전공한 고혜련동창이 9월 학기부터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전임연구교수로 임용되었다.

손지애 (정외 85)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인 손 동창이 2013년 10월 싱가포르 콘텐즈미디어사인 '콘텐즈아시아'가 선정한 '아시아 미디어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2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정수인 (동양화 85)

2013년 10월 22일~27일까지 '자연을 담았고, 계절을 닮았다'라는 주제로 갤러리 누리에서개인전을 가졌다.

최유미 (생미 85)

2013년 11월 14일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에서 '서울지역협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신아연 (철학 87)

호주한국일보 편집국 부국장을 지낸 신 동창이 최근 칼럼전문 사이트 자유칼럼그룹, 한국언론문화포럼, 말코글방 정회원으로 중앙일보, 여성동아 등에 기고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혜숙 (동양화 87)

구랍 6일~22일까지 소마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고기현 (동양화 88)

최근 양평군 서종면에 '피아노키오라는 갤러리 카페를 오픈하였다.

곽상흔 (정외 88)

1988년부터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온 곽 동창은 한국어 전문 강사로 서강대 한국어교육원과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등에서 강의하며 세계 40개국의 외국인 제자 5천 명을 배출하였다.

기유경 (동양화 88)

'Thanks giving'을 주제로 2013년 9월 30일~10월 5일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김선영 (조소 89)

2013년 9월 28일~10월 6일 MANIF예술의전당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10월 3일~7일최승애(조소 85) 동창과 함께 KIAF 전시회를 가졌다.

윤순란 (섬예 89)

2013년 11월 14일~21일 에뽀끄 갤러리에서 철사를 이용한 작업으로 인간의 고뇌를 표현한 개인전을 열었다.

민세원 (도예 89)

디자인대학원과 Northern Illinois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민 동창이 국민대 조형대학 도자공예학과 조교수로 임명되어 강의를 전담하고 있다.

전경화 (섬예 89)
섬유미술가인 전 동창이 2013년 10월 31일~11월 3일 미국 시카고 SOFA(Sculpture Objects Functional Art + Design)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심은정 (기독 90)
독일 뉘른베르크대학 종교학 박사학위 중인 심 동창이 2013년 11월 27일 제 12회 한국문학 번역 신인상을 수상했다.

김지혜 (도예 91)
이대 대학원에서 조형예술학 박사학위를 받고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작품활동을 한 김 동창이 이대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도자예술전공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이은주 (동양화 91)
최근 친환경을 인증받은 고창황토농장을 오픈하였다.

김덕희 (도예 92)
일본에서 활동 중인 김 동창의 개인전을 2013년 11월 6일~11일 동경 야사시이 예감 갤러리에서 열었으며 2014년 5월 13일~29일까지 일본대사관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성주연 (대학원 피아노 92)
이대 대학원 졸업 후 도미하여 석사학위(M.M.)와 피아노 연주학 박사학위(D.M.A.)를 취득한 성 동창이 구랍 15일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하였다.

이보름 (동양화 92)
'일상의 향기2, 삶의 한순간' 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 11월 20일~26일까지 갤러리 아이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희준 (약학 92)
뮤지컬 연출 작가인 이 동창이 부군인 김운기 씨와 함께 연출한 창작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가 2013년 10월 15일~2014년 1월 5일까지 충무아트홀 소극장블루에서 공연하였다.

박희경 (화학 93)
전 한국화이자 상무인 박 동창이 2013년 11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 의 희귀질환 사업부문인 '젠자임 코리아' 사장으로 영전하였다.

김시연 (조소 94)
2013년 10월 11일~31일 스페이스 월링앤딜링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김양선 (조소 94)
2013년 11월 4일~12월 7일까지 개인전을 미+N갤러리에서 열었다.

윤정원 (동양화 94)
갤러리 라메르에서 2013년 10월 9일~15일 '심상 속 흔적의 기운' 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조은희 (조소 94)
개인전 'eCho Art Project' 를 2013년 11월 23일~2014년 2월 28일까지 신신호텔에서 개최한다.

오정선 (조소 96)
2013년 9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KAIST아트리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전영신 (환경 97)
미국 워싱턴 대학 조교수인 전 동창이 최근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이경희 (동양화 98)
2013년 9월 3일~16일 'Daylight' 라는 제목으로 Artspace Loo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지향 (조소 98)
스페이스컴에서 2013년 9월 25일~10월 10일까지 개인전을 가졌다.

홍은아 (체육 03)
전 여자축구 심판이며 현 대한축구협회 이사인 홍 동창이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2014년 8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U-20(20세 이하) 여자월드컵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으로 위촉받았다.

진민욱 (동양화 03)
'교감' 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 11월 13일~20일 갤러리 담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박영경 (동양화 06)
내일의 작가 수상 기념전을 2013년 11월 21일~12월 11일까지 겸재정선기념관에서 열었다.

계수진 (동양화 12)
찢겨진 포장지라는 제목으로 10월 2일~8일까지 57GALLERY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송영실 (장미 13)
국내 최고 권위와 역사를 가진 제 44회 중앙디자인 콘테스트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송 동창이 금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바로잡습니다.
132호 '축하합니다' 난의 정미현 동창 학과는 독문과로서 수상은 10월 18일 스위스에서 있었습니다.
'동창 소식' 난의 장진이(생명 90)는 (생명 92)입니다.

후원이사회비납부자 명단

2013. 1 – 2013. 12 (가나다순 게재)

강숙희(불문 74)	1,000,000
강정설(사학 78)	1,000,000
권미경(교공 87)	1,000,000
권오남(수교 83)	2,000,000
권혜정(의직 84)	1,000,000
기순신(교육 83)	2,000,000
김경희(법학 00)	1,000,000
김경희(정외 83)	2,000,000
김광민(사학 83)	2,000,000
김나영(교공 83)	2,000,000
김미순(기독 75)	1,000,000
김성옥(생명 72)	1,000,000
김소현(의직 83)	2,000,000
김순영(약학 62)	1,000,000
김영미(법학 83)	2,000,000
김영주(장미 83)	2,000,000
김영혜(불문 77)	1,000,000
김원정(영문 75)	1,000,000
김유겸(의직 70)	1,000,000
김은경(성악 83)	2,000,000
김이경(문정 77)	1,000,000
김정아(컴퓨터 85)	1,000,000
김진미(수학 83)	2,000,000
김진향(간호 73)	1,000,000
김태경(의학 84)	1,000,000
김태임(의학74)	2,000,000
김현남(무용 83)	2,000,000
김혜영(물리 83)	2,000,000
김화숙(의학 71)	1,000,000
김효신(의학 84)	1,000,000
남덕자(영문 73)	1,000,000
남성희(신방 78)	1,000,000
노혜연(컴퓨터 85)	1,000,000
문남미(컴퓨터 85)	1,000,000
문미란(법학 80)	1,000,000
박경실(체육 78)	1,000,000
박경입(시영 73)	1,000,000
박귀천(법학 95)	1,000,000
박금옥(사생 83)	2,000,000
박민선(의학 83)	1,000,000
박애영(법학 96)	1,000,000
박유나(도예 81)	1,000,000
박정례(섬예 79)	1,000,000
박지원(국제사무83)	2,000,000
박현숙(영교 83)	2,000,000
방명혜(기악 67)	1,000,000
배순희(의학 75)	1,000,000
배혜화(불문 77)	1,000,000
백경신(제약 72)	1,000,000
백수경(신방 79)	1,000,000
변은경(간호 83)	2,000,000
설영자(의직 75)	2,000,000
성시열(의학 81)	1,000,000
손성혜(교육 64)	1,000,000
송선희(의학 77)	1,000,000
신난식(성악 73)	1,000,000
신혜영(화학 78)	1,000,000
안소영(약학 83)	2,000,000
양수화(교대원 74)	1,000,000
양정진(컴퓨터 85)	1,000,000
오양자(의학 65)	1,000,000
오연주(유교 83)	2,000,000
오인경(심리 83)	2,000,000
오혜숙(의학 78)	1,000,000
우미형(의직 77)	1,000,000
위승원(제약 83)	1,000,000
유경희(과교 83)	2,000,000
유기숙(의학 75)	2,000,000
유동원(의학 84)	1,000,000
유선경(초교 83)	2,000,000
유영선(신방 75)	1,000,000
윤묘섭(한음 83)	2,000,000
윤미숙(물리 83)	1,000,000
윤석완(의학 76)	1,000,000
윤순희(교육 65)	1,000,000
이동광(영문 82)	1,000,000
이미애(약학 79)	1,000,000
이선규(성외 74)	1,000,000
이선용(독문 83)	2,000,000
이선정(도예 83)	2,000,000
이순재(의학 75)	1,000,000
이승희(의학 84)	1,000,000
이영재(철학 86)	1,000,000
이용주(의학 77)	2,000,000
이재옥(의학 73)	1,000,000
이정숙(약학 57)	1,000,000
이정화(독문 74)	1,000,000
이종민(의학 80)	2,000,000
이현숙(의학 64)	1,000,000
이현주(섬예 83)	2,000,000
이현주(생미 83)	2,000,000
이혜성(의학 77)	1,000,000
이혜옥(사학 74)	1,000,000
임유리(경영 01)	1,000,000
임재영(의직 77)	1,000,000
임혜준(제약 83)	1,000,000
장민선(법학 00)	1,000,000
장영은(불문 83)	2,000,000
전선혜(체육 83)	2,000,000
전재성(외교 83)	2,000,000
정미경(의학 84)	1,000,000
정숙영(장미 82)	1,000,000
정용희(약학 75)	2,000,000
정은숙(의학 84)	1,000,000
정조인(식영 83)	2,000,000
정준순(약학 72)	1,000,000
정호정(사회 83)	2,000,000
정호진(의학 83)	2,000,000
정희선(피아노 83)	2,000,000
조경원(교육 75)	1,000,000
소종남(의학 75)	1,000,000
조혜숙(간호 76)	1,000,000
조혜영(컴퓨터 85)	1,000,000
차순자(의학 60)	1,000,000
채경령(경영 83)	2,000,000
채성수(서양 83)	2,000,000
최영은(정책대 08)	1,000,000
최인순(의직 79)	1,000,000
피상순(의학 84)	2,000,000
한숙영(제약 79)	1,000,000
한승연(동양 83)	2,000,000
한재욱(수학 79)	2,000,000
황경수(제약 88)	1,000,000
황명순(정외 75)	1,000,000
황북기(화학 83)	2,000,000
황인경(과교 86)	2,000,000
황재복(영문 83)	2,000,000
황혜선(서양 75)	1,000,000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13. 1 – 2013. 12

2013년 총동창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보내주신 동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창들께서 보내주신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납부자 명단 문의는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과학대학

문과
이윤재 (1943)
이희호 (1944)
이군옥

국어국문학과
전상애 (1956)
박현숙 (1957)
허미자 (1957)
김영학 (1958)
김인순 (1958)
김수희 (1958)
임인진 (1958)
김중자 (1960)
남을우 (1961)
윤숙자 (1963)
이점숙 (1963)
유해일 (1963)
박미해 (1964)
안정환 (1965)
유정자 (1965)
신효재 (1966)
이혜숙 (1966)
정준선 (1966)
이 혜 (1967)
서경자 (1963)
송호연 (1969)
신언임 (1969)
유원화 (1969)
이명숙 (1969)
정순자 (1971)
맹경순 (1973)
정혜숙 (1973)
최취수 (1973)
전신애 (1975)
한순미 (1975)
백영자 (1976)
이미숙 (1980)
하선아 (1985)
여지은 (1994)
진혜원 (1994)
박재윤 (1996)
김소정 (1998)
이주현 (1999)
임지현 (2000)
남정인 (2003)
안수정 (2004)
이지원 (2005)
정혜아 (2005)
이수진 (2006)
안상신 (2007)
이혜은 (2007)
장소영 (2007)
조성은 (2007)
박혜성 (2008)
송현주 (2008)
장장미 (2008)
김민영 (2010)
김수연 (2010)
나문희 (2010)
고은정 (2011)
조인숙 (2011)
오선혜 (2012)
유혜리 (2012)
현은경 (2012)

중어중문학과
이호정 (1987)
김은주 (1999)
강보경 (2003)
문여정 (2003)
배지영 (2005)
이설희 (2005)
김민지 (2005)
한정주 (2006)
김정은 (2006)
금효빈 (2007)
김세미 (2007)
백지현 (2007)
서어진 (2007)
이지현 (2007)
최선희 (2007)
신유영 (2008)
이한나 (2008)
이현주 (2008)
최주은 (2008)
신재은 (2011)
김 설 (2012)
조선영 (2012)
백민영 (2013)
신연선 (2013)
이경미 (2013)
조란희 (2013)

영어영문학과
임정희 (1949)
최윤애 (1949)
김영정 (1950)
류수인 (1950)
김순자 (1955)
김승숙 (1955)
백형진 (1955)
천영애 (1955)
최일연 (1955)
함선영 (1956)
김형식 (1956)
이인주 (1956)
곽경수 (1957)
김춘삼 (1957)
홍기옥 (1957)
김경숙 (1958)
오수항 (1958)
남윤선 (1960)
박재옥 (1960)
이강희 (1960)
최영희 (1960)
김영순 (1961)
김옥선 (1961)
유승옥 (1961)
이정희 (1962)
이행자 (1962)
정기호 (1962)
김정매 (1963)
문영혜 (1963)
박봉숙 (1963)
박인자 (1963)
양정자 (1963)
엄윤성 (1963)
유명자 (1963)
유정은 (1963)
정복영 (1965)
정해원 (1965)
최은주 (1965)
최청규 (1965)
정홍자 (1967)
김교숙 (1968)
이영숙 (1968)
이원희 (1968)
이유경 (1968)
김영숙 (1969)
김현숙 (1969)
김수영 (1970)
김순희 (1970)
성혜옥 (1970)
송봉자 (1970)
이정희 (1970)
김수연 (1971)
이명숙 (1971)
김정주 (1972)
이승신 (1972)
장 선 (1972)
이명숙 (1974)
정덕애 (1974)
박현주 (1975)
백혜련 (1975)
최수행 (1975)
이계호 (1976)
신미경 (1977)
윤정근 (1978)
허정자 (1978)
이혜남 (1979)
홍성숙 (1979)
김영실 (1980)
김혜수 (1980)
윤주현 (1980)
이승희 (1980)
고혜선 (1982)
김미원 (1982)
불 명 (1982)
이영진 (1982)
이영진 (1982)
임순희 (1982)
최정숙 (1982)
서정채 (1983)
서정채 (1983)
황재복 (1983)
전기옥 (1984)
백미현 (1987)
임현진 (1989)
양은정 (1990)
안상희 (1994)
이승은 (1994)
홍민혜 (1997)
최수진 (1999)
오승우 (2000)
윤숙종 (2002)
김지현 (2006)
김희경 (2008)
서은주 (2008)
김 시 (2009)
박명숙 (2009)
안효진 (2009)
염지현 (2009)
이지은 (2009)
임은지 (2009)
전지혜 (2009)
현솔잎 (2009)
신민영 (2009)
안지혜 (2009)
김윤아 (2010)
이주은 (2010)
이지민 (2010)
이보영 (2011)
배효진 (2012)
이조아 (2012)
권바다 (2013)
김수안 (2013)
김인영 (2013)
유선명 (2013)
장혜진 (2013)
최은성 (2013)
한수정 (2013)
김미현
김희자
유의순
이옥배
이지민

불어불문학과
이광자 (1960)
서정순 (1962)
허영자 (1962)
윤용범 (1964)
조행자 (1964)
조귀연 (1965)
김영희 (1966)
이초혜 (1966)
이초혜 (1966)
엄선경 (1967)
이경혜 (1967)
이한순 (1967)
김혜원 (1968)
박순자 (1968)
박종희 (1968)
이원옥 (1968)
홍미자 (1968)
민혜경 (1971)
강숙희 (1973)
장혜경 (1973)
강숙희 (1974)
권희유 (1974)
김명순 (1976)
이계영 (1978)
신정수 (1981)
장영은 (1983)
장영은 (1983)
김은숙 (1984)
진미화 (1990)
김석진 (1992)
박윤경 (1997)
김현정 (2000)
김한주 (2001)
장영선 (2002)
최연희 (2002)
허 인 (2005)
김희진 (2007)
이소영 (2008)
장현정 (2008)
강지은 (2009)
김현주 (2009)
김지영 (2012)
이훈지 (2012)
박상미 (2013)

독어독문학과
민용사 (1967)
오영란 (1967)
이중희 (1967)
이숙경 (1968)
조영주 (1968)
유귀열 (1969)
이금숙 (1969)
권영희 (1970)
최영민 (1971)
현영은 (1971)
차성은 (1972)
신정숙 (1974)
이정화 (1974)
황영남 (1975)
변옥주 (1976)
남은주 (1980)
정종희 (1980)
손미경 (1995)
박연주 (2005)
배시우 (2010)
이도유 (2012)
유동신

사학과
박기주 (1954)
손경수 (1960)
송은자 (1960)
김호숙 (1961)
김학자 (1962)
남상훈 (1962)
노수자 (1964)
김재향 (1967)
서정임 (1968)
심지향 (1968)
임지향 (1968)
민병서 (1971)
불 명 (1972)
김영주 (1973)
이혜옥 (1974)
김지영 (1975)

신향범 (1975)
이재순 (1975)
장경원 (1975)
정현주 (1976)
김영완 (1981)
정유심 (1981)
차은미 (1986)
이영란 (1987)
이은주 (1997)
노수영 (2007)
김설란 (2009)
한원주 (2009)
이수영 (2012)
조혜진 (2012)
박다해 (2013)
사현아 (2013)

철학과
이영재 (1986)
이지애 (1987)
민 정 (1998)
최지선 (2001)
김은영 (2009)
김민성 (2012)
김지연 (2012)
전해인 (2013)

기독교학과
전민혜 (1953)
김영라 (1965)
신혜정 (1965)
이정자 (1966)
이혜재 (1966)
장수자 (1966)
김봉희 (1966)
김연숙 (1971)
김미순 (1975)
유승희 (1982)
조정자 (2004)
이사라 (2006)
방보람 (2009)
김정언 (2012)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명광성 (1957)
오명령 (1957)
김윤수 (1960)
최향남 (1960)
윤혜자 (1961)
최금자 (1966)
우행자 (1969)
최명자 (1969)
김영희 (1970)
백영옥 (1970)
서염미 (1970)
서정희 (1970)
심인주 (1970)
이양준 (1970)
이연표 (1970)
조백련 (1970)
조복선 (1970)
하정희 (1970)
이혜련 (1970)
이명옥 (1971)
서미영 (1972)
이상옥 (1972)
최종혜 (1976)
이문숙 (1979)
최종숙 (1980)
김경희 (1983)
이영미 (1985)
정미경 (1986)
김희정 (1988)
김수경 (1989)
이소영 (1997)
정하나 (1998)
김민아 (2001)
박지현 (2002)
박지은 (2003)
오현진 (2003)
이주연 (2004)
홍지영 (2005)
이윤경 (2007)
이은별 (2009)
이재영 (2009)
이유주 (2010)
현지은 (2010)
권용지 (2012)
김인애 (2012)
백지윤 (2012)
신혜정 (2012)
왕수안 (2012)
이가람 (2013)
이주현 (2013)
이정안 (2001)
임유자 (1959입)
김혜승

행정학과
김양희 (1987)
불 명 (1987)
최희숙 (1988)
손주애 (2005)
임원경 (2006)
정현진 (2006)
유샛별 (2007)
임 정 (2007)
박성희 (2008)
권보라 (2009)
이혜영 (2009)
이혜진 (2009)
심미혜 (2010)
김윤지 (2011)
강봄별 (2012)
강예람 (2012)
박소정 (2012)
박채린 (2012)
신유경 (2012)
신혜원 (2012)
유성유 (2012)
이양지 (2012)
이지수 (2013)
이하나 (2013)
임수진 (2013)
장영신 (2013)
장소명 (2012)

경제학과
정혜원 (1988)
장글주 (1989)
강정현 (1993)
김영서 (2003)
김보경 (2005)
김현경 (2005)
이진숙 (2006)
신진원 (2007)
이민희 (2007)
이현주 (2007)
최미영 (2007)
최연주 (2007)
허예상 (2007)
김나현 (2008)
서여경 (2008)
유현경 (2008)
이주영 (2008)
윤선희 (2009)
이은아 (2009)
함연희 (2009)
박단아 (2010)
오누리 (2010)
장윤선 (2010)
주애경 (2010)
최애리 (2010)
최인경 (2010)
박정민 (2011)
심시영 (2011)
오경민 (2011)
이수경 (2011)
전아영 (2011)
김가영 (2012)
박민영 (2012)
백옥경 (2012)
양예빈 (2012)
임다혜 (2012)
채성경 (2012)
김소영 (2013)
박지혜 (2013)
성민지 (2013)
이영신 (2013)

문헌정보학과
채희군 (1963)
김정례 (1964)
유소영 (1965)
유애저 (1965)
진성자 (1965)
최선희 (1965)
홍승진 (1965)
권정자 (1968)
박영숙 (1968)
이민자 (1968)
권혜순 (1969)
백봉희 (1970)
송영숙 (1970)
이주식 (1972)
김이경 (1977)
고광옥 (1981)
윤화진 (1981)
이은정 (1999)
정혜영 (2004)
박혜정 (2010)
김수민 (2011)
이주현 (2011)
허소현 (2011)
김혜진 (2012)

사회학과
장의순(1962)
최용소 (1965)
정행자 (1966)
유혜향 (1966)
양옥남 (1967)
이효원 (1969)
민순기 (1970)
박춘호 (1970)
이현숙 (1970)
최진선 (1970)
김난숙 (1974)
문명재 (1977)
양해경 (1977)
김은미 (1981)
김혜경 (1981)
황성희 (1981)
지연숙 (1982)
조혜원 (1996)
박혜정 (1997)
정혜선 (2005)
최경세 (2007)
이지은 (2012)
김시정 (2013)

사회복지학과
이숙자 (1957)
이정숙 (1961)
최제명 (1966)
김일숙 (1967)
김휘성 (1967)
최수자 (1967)
고순자 (1969)
박영애 (1979)
김혜순 (1984)
성명신 (1995)
이영미 (2002)
정유신 (2002)
김혜옥 (2007)
이송희 (2007)

심리학과
박경숙 (1957)
백남희 (1959)
김태련 (1960)
기오성 (1961)
오봉림 (1961)
유남숙 (1962)
황경숙 (1962)
불 명 (1963)
차정자 (1965)
박순자 (1966)
홍기명 (1968)
김정애 (1976)
조상옥 (1976)
김영주 (1981)
이부용 (1981)
이연우 (1984)
이동길 (1989)
박찬주 (1991)
장서희 (2001)
정수연 (2002)
최선아 (2004)
김선영 (2009)
함예림 (2012)
어윤지 (2013)
김보영 (2011)

신문방송학과
한명미 (1967)
김명자 (1968)
최원주 (1969)
성인숙 (1970)
문은희 (1972)
박화숙 (1974)
유영선 (1975)
주연아 (1976)
조미경 (1979)
이 현 (1983)
김상경 (1989)
양선아 (1989)
주보경 (1990)
김수연 (2002)
황혜경 (2005)
김솔빈 (2007)
김현지 (2007)
김신혜 (2009)
우진영 (2009)
김수현 (2010)
류 리 (2010)
윤우리 (2010)
최수영 (2011)
고재원 (2012)
이서희 (2012)
김미솔 (2013)
김유진 (2013)
노은미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이기호 (1959)
오응덕 (1960)
윤연상 (1961)
장 상 (1962)
송순기 (1963)
남선일 (1964)
신정수 (1965)
민경자 (1967)
김상기 (1969)
김영숙 (1970)
최길남 (1970)
이숙자 (1973)
이순명 (1980)
김진미 (1983)
한진영 (1993)
이수현 (2000)
최예진 (2007)
박나영 (2008)
유하나 (2008)
박향미 (2010)
이지연 (2011)
신혜원 (2012)
이은혜 (2012)
최윤정 (2012)
신나리 (2013)
장성은 (2013)
장지윤 (2013)
정덕인 (2013)
조혜미 (2013)
박나영

통계학과
양수지 (1993)
김혜미 (2004)
이영수 (2007)
현은주 (2009)
김주혜 (2011)
조승희 (2011)
김지수 (2012)
장고은 (2012)
구은파 (2013)
김동이 (2013)
김지수 (2013)
나은진 (2013)
노서정 (2013)
박혜진 (2013)
서은진 (2013)
이소영 (2013)
조아라 (2013)

물리학과
조옥주 (1961)
신승애 (1963)
김경자 (1968)
김영선 (1968)
손종수 (1972)
강윤자 (1974)
김성희 (1974)
불 명 (1975)
민병주 (1981)
신희원 (1992)
우연경 (2003)
이현주 (2013)

화학과
박원경 (1956)
강영옥 (1960)
김정남 (1960)
김종은 (1960)
김세명 (1962)
강성화 (1963)
양영자 (1965)
유문자 (1965)
이정숙 (1965)
양수경 (1967)
이인희 (1970)
심송영 (1972)
이정숙 (1972)
배경화 (1974)
박세주 (1975)
진영전 (1975)

김정원 (1976)
황북기 (1983)
민성혜 (1986)
이연승 (1988)
국현아 (1994)
양영숙 (1995)
박세영 (1996)
박효진 (1997)
서승희 (2003)
반미연 (2007)
최혜윤 (2007)
김민경 (2009)
손금선 (2009)
유혜진 (2009)
정사라 (2009)
전은지 (2010)
정다영 (2010)
박소영 (2012)
채주희 (2012)
윤지수 (2013)
황새암 (2013)
황유미 (2013)
박명옥

생명과학과
노분조 (1958)
류 우 (1960)
최순경 (1960)
최영희 (1960)
홍임선 (1960)
서영숙 (1961)
정은자 (1961)
황녕자 (1961)
윤영애 (1968)
변희숙 (1973)
윤영명 (1974)
함천경 (1977)
이선영 (1987)
강숙경 (1989)
변윤정 (2000)
송은미 (2002)
최미경 (2004)
김도연 (2005)
최애선 (2005)
송원경 (2006)
송혜진 (2007)
안지현 (2007)
장선미 (2007)
김재희 (2008)
조가현 (2009)
이지향 (2010)
김수진 (2011)
유지원 (2011)
유혜란 (2011)
이연경 (2011)
신안나 (2012)
유미란 (2012)
이미경 (2012)
탁민경 (2012)
함주리 (2012)
김예린 (2013)
김유진 (2013)
박혜진 (2013)
손민지 (2013)
이미경 (2013)
이에니 (2013)
이유나 (2013)
이지윤 (2013)
블 명 (77학번)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조혜영 (1985)
이혜숙 (1989)
송미화 (2002)
조은영 (2002)
조윤경 (2005)
윤기연 (2006)
문소임 (2009)
블 명 (2009)
최선호 (2009)
차수람 (2010)
구정연 (2012)
길경원 (2012)
주선아 (2012)
한주연 (2012)
강태경 (2013)
김은영 (2013)
홍수지 (2013)
이은경

정보통신학과
이소희 (2006)
이지현 (2006)
안소은 (2007)
원서우 (2007)
이지선 (2009)
장예슬 (2011)
이주언 (2012)

건축학과
박인영 (1999)
블 명 (2000)
김항아 (2002)
채홍미 (2004)
블 명 (2005)
홍경진 (2005)
김은희 (2008)
박소라 (2010)
복서연 (2010)
김혜진 (2011)
서 은 (2012)
황윤정 (2012)
김명진 (2013)
유종미 (2009)
심미혜

환경공학과
하빛나 (2008)
이원정 (2010)
이은경 (2012)

음악대학

기악과
이순영 (1961)
정소영 (1962)
최승현 (1963)
황경자 (1963)
정청자 (1964)
윤미재 (1965)
방명혜 (1967)
지순경 (1968)
나효선 (1970)
김희진 (2006)
구희진 (2007)
정보람 (2011)

음악과
신금선 (1950)
계순영 (1956)
심재명 (1957)
오혜영 (1968)
김 영 (1975)

건반악기
원현정 (2008)
유성희 (2010)
손진선 (2012)
송재정 (2013)

피아노과
조영숙 (1953)
이혜영 (1983)
정희선 (1983)
계명선 (1985)
조성옥 (1985)
우숙영 (1987)
남경희

관현악과
이순자 (1959)
한영식 (1972)
서봉숙 (1977)
이규인 (1978)
전경희 (1979)
배종선 (1990)
최은아 (1999)
문정아 (2001)
구윤경 (2005)
김희선 (2005)
김성희 (2005)
박보아 (2008)
임연하 (2012)
박혜정

성악과
주영희 (1957)
남옥우 (1960)
이풍자 (1963)
이혜자B (1965)
석정자 (1967)
왕아자 (1967)
송연숙 (1971)
오영주 (1977)
정계숙 (1982)
천인숙 (1982)
석혜원 (1994)
황은정 (2004)
류 미 (2007)
이남윤 (2010)
이선희 (2012)
전다예 (2012)
이주현 (2013)

작곡과
김옥자 (1967)
김시에 (1975)
이주희 (1975)
장길자 (1976)
신순아 (1985)
이수정 (1997)
정혜정 (2005)

종교음악과
오재복 (1979)
김미연 (1987)
송은경 (1994)

한국음악과
이명숙 (1981)
윤묘섭 (1983)
곽은아 (1985)
권인옥 (1995)
김찬미 (2006)
권혜정 (2009)
이예나 (2009)
성초롱 (2010)
권한송이 (2011)
박세린 (2012)

조형예술대학

미술과
주의순 (1960)

동양화과
이채언 (1970)
문 예 (1975)
이 (1976)
박인숙 (1978)
박동미 (1979)
한승연 (1983)
곽은숙 (1986)
김강인 (2008)
김은혜 (2012)
정유진 (2012)

서양화과
최구자 (1965)
이선희 (1967)
강승애 (1972)
신윤방 (1972)
이정주 (1972)
김효정 (1977)
함기옥 (1979)
공은희 (1980)
지연희 (1981)
김민희 (1985)
김선주 (1989)
권은정 (1990)
최유원 (2013)

조소과
심인자 (1974)
윤영숙 (1974)
이혜경 (1974)
김종희 (1979)
서옥천 (1981)
하 정 (1981)
권경미 (1982)
고은선 (2007)
홍경숙 (196)

섬유예술과
이 (1961)
함인숙 (1961)
최희경 (1965)
변정현 (1967)
노정자 (1968)
박광혜 (1968)
손정례 (1972)
임정매 (1974)
박정례 (1979)
박정희 (1980)
손경숙 (1980)
이현주 (1983)
이귀숙 (1985)
정학용 (1985)
장수연 (1991)
정윤선 (1993)
김연재 (1994)
안미현 (1994)
권남희 (2009)
강경민 (2010)
김지민 (2011)
신혜주 (2012)

생활미술과
문희자 (1967)
이민정 (1967)
조창연 (1967)
이화례 (1968)
김미자 (1970)
박선영 (1971)
노 용 (1972)
이미숙 (1972)
남은숙 (1980)
이주형 (1980)
남연숙 (1986)

장식미술과
함옥진 (1977)
고정란 (1981)
김영주 (1983)
블 명 (1987)
신승원 (1987)
유미나 (1996)

도예과
진숙현 (1977)
문혜심 (1980)
박유나 (1981)
최진녀 (1982)
이선정 (1983)
안희정 (1985)
엄승희 (1988)
강영순 (2001)
최은선 (2006)
황영미 (2007)
전예슬 (2012)

정보디자인
김재원 (2001)

시각정보디자인
정다유 (2010)

환경디자인
강한송 (2008)
이미지 (2008)
박세진 (2010)
이경미 (2011)

패션디자인
문지언 (2012)
김세미 (2006)

산업디자인
김태은 (2009)
문수현 (2011)
유하연 (2002)

회화 판화
이근아름 (2006)
손예인 (2011)
이영민 (2011)

체육대학

체육학과
조성환 (1949)
이성녀 (1965)
최병화 (1966)
최춘자 (1966)
전성자 (1967)
이정자 (1968)
서희경 (1969)
정순희 (1969)
문규순 (1970)
문현수 (1970)
전자원 (1970)
조수열 (1971)
김은희 (1972)
문진수 (1972)
윤남숙 (1972)
이영란 (1976)
박경실 (1978)
이미령 (1979)
전선혜 (1983)
김진이 (1985)
이윤숙 (1994)
노현경 (2007)
안단비 (2007)
이슬비 (2009)
곽새빛 (2012)

사회체육과
박서진 (2004)
임정화 (2004)
임은실 (2005)

무용과
김정수 (1970)
조수형 (1970)
김성민 (1977)
김경주 (1980)
김현남 (1983)
박란주 (1985)
유미희 (1987)
김유경 (1996)
2012년
김유경 (1996)
2013년
김윤진 (1996)

이지연 (2006)
조경림 (2006)
박진덕 (2007)
김명미 (2009)
김하예린 (2010)
안지영 (2010)
정재연 (2010)
이지혜 (2013)
황희진 (2013)

사범대학

교육학과

백인숙 (1950)
정일례 (1950)
호재숙 (1949입)
사지숙 (1955)
김금순 (1956)
김에자 (1956)
전재순 (1956)
조병주 (1956)
권유봉 (1958)
정재숙 (1958)
권봉선 (1959)
김성숙 (1959)
김은산 (1959)
김춘심 (1959)
심재완 (1959)
주성민 (1959)
한임순 (1959)
김문자 (1960)
장영진 (1960)
오춘란 (1961)
장경희 (1961)
정기숙 (1961)
최영란 (1961)
홍정자 (1961)
이정숙 (1962)
박덕순 (1963)
백영자 (1963)
이정옥 (1963)
심기종 (1965)
윤순희 (1965)
김영애 (1967)
원지영 (1967)
차귀숙 (1967)
고명희 (1968)
김신지 (1968)
박경희 (1968)
박영자 (1968)
박정수 (1968)
박혜숙 (1968)
이재옥 (1968)
장예순 (1968)
황순자 (1969)
김임순 (1970)
유승희 (1970)
박국자 (1972)
김명희 (1973)
김여옥 (1974)
채문숙 (1974)
임현숙 (1975)
조경원 (1975)
노경희 (1977)
정미경 (1979)
박영숙 (1981)
기순신 (1983)
설건혜 (1985)
강영희 (2004)
문혜진 (2006)
박소영 (2006)
정수현 (2008)
정현주 (2009)
이지현 (2011)
윤소희 (2012)

유아교육과

이은화 (1959)
전윤숙 (1961)
정명자 (1968)
김영주 (1971)
조한수 (1971)
양승희 (1972)
김영재 (1974)
문경숙 (1974)
김정원 (1985)
장태옥 (1987)
안영주 (1988)
유청옥 (1988)
박희경 (1989)
장문정 (1994)
곽영숙 (2001)
장 미 (2003)
김호영 (2007)
구현경 (2008)
이소영 (2008)
김지현 (2010)
정소영 (2010)
조희재 (2010)
이정민 (2011)
이혜인 (2012)
박선영 (2013)

초등교육과

고정사 (1964)
양영숙 (1964)
이행자 (1965)
성경자 (1971)
염미봉 (1977)
조진영 (1977)
이화자 (1979)
박 (1981)
안미현 (2005)
김해든 (2010)
조희준 (2010)
권수정 (2012)
손혜진 (2012)
이창수 (2012)
임서영 (2012)
장세영 (2012)
권지효 (2013)
김영선 (2013)
김원경 (2013)
박주비 (2013)
박지현 (2013)
신하은 (2013)
유다연 (2013)
이세희 (2013)
최은진 (2013)
한미진 (2013)
황연이 (2013)

교육공학과

김준희 (1967)
도영숙 (1968)
노정숙 (1974)
신경인 (1975)
하진경 (1975)
하경옥 (1977)
김나영 (1983)
박효숙 (1984)
전신숙 (1984)
강효숙 (1995)
최순이 (1997)
한정이 (2010)
박지영 (2011)
김누리 (2012)
설윤경 (2012)
김경진 (2013)

특수교육과

김인영 (1975)
박애영 (1975)
김태연 (1981)
최주희 (1982)
강경숙 (1991)
노영예 (2006)
박민경 (2006)
이해나 (2007)
김지은 (2011)
류성혜 (2011)
이은하 (2011)
김연수 (2012)
문희순 (2012)
백경리 (2012)
여나영 (2012)
이소명 (2012)
채화언 (2012)
배다연 (2013)
윤지영 (2013)
홍혜림 (2013)

영어교육과

김경숙 (1969)
지덕옥 (1975)
강월석 (1976)
불명 (1978)
안경숙 (1978)
이미옥 (1978)
이미옥 (1979)
강혜숙 (1980)
강혜숙 (1980)
윤혜화 (1980)
양윤희 (1986)
이현정 (1994)
민경선 (2000)
문명현 (2004)
민지혜 (2004)
심규연 (2005)
박세미 (2008)
안소현 (2008)
구성은 (2011)
노승연 (2011)
김다솔 (2012)
김동은 (2012)
나보라 (2012)
박마로 (2012)
배서윤 (2012)
주소영 (2012)
강인영 (2013)
김영정 (2013)
서기쁨 (2013)
안지영 (2013)
원희재 (2013)
조진희 (2013)
최지민 (2013)

외국어교육과

계기원 (1969)
이혜완 (1969)
전화순 (1982)
전재성 (1983)

사회생활학과

박정복 (1957)
서금숙 (1959)
최용혁 (1960)
김영희 (1961)
김형자 (1961)
홍승임 (1961)
강혜온 (1963)
배영규 (1963)
조칭자 (1963)
박옥연 (1965)
양인숙 (1966)
최영자 (1966)
백진수 (1968)
성봉기 (1968)
김옥희 (1969)
김숙자 (1970)
민태희 (1970)
박영주 (1970)
채영원 (1974)
이연희 (1975)
홍혜경 (1980)
부은령 (1981)
이연자 (1992)
정은정 (1997)
박은혜 (2001)
하승미 (2003)
노은언 (2005)
박윤정 (2005)
김계리 (2006)
윤가영 (2007)
신영재 (2008)
양인명 (2008)
이시영 (2009)
이지영 (2009)
방소민 (2010)
황혜성 (2010)
황정은 (2011)
김보아 (2012)
김지은 (2012)
송예진 (2012)
신미영 (2012)
조수진 (2012)
이소정 (2013)
이윤실 (2013)
이재영 (2013)
임사랑 (2013)
조예슬 (2013)
조한별 (2013)
현지아 (2013)

과학교육과

송옥자 (1966)
이순자 (1967)
한욱희 (1967)
한태화 (1968)
주영미 (1972)
정재용 (1974)
김인원 (1975)
이헌숙 (1979)
박현경 (1981)
선해영 (1983)
김상명 (1986)
송현주 (1987)
이은미 (1987)
박경희 (1988)
손지현 (1989)
전희성 (1993)
함혜원 (1993)
박균하 (1994)
정선애 (1994)
김현미 (1996)
공지헌 (2002)
김종환 (2004)
홍혜영 (2005)
박혜주 (2008)
이 (2008)
김나라 (2009)
김지윤 (2009)
마승연 (2009)
임하나 (2009)
정현정 (2010)
김규연 (2011)
심혜원 (2011)
이현정 (2011)
임선정 (2011)
고경란 (2012)
김나영 (2012)
김미림 (2012)
김희수 (2012)
노 을 (2012)
민아영 (2012)
박영선 (2012)
박재은 (2012)
박지은 (2012)
송미령 (2012)
양혜빈 (2012)
황경숙 (2012)
황사라 (2012)
강은지 (2013)
김미라 (2013)
김은혜 (2013)
이경희 (2013)
정종희 (2013)
황희정 (2011)

수학교육과

이영희 (1978)
이정옥 (1980)
반진윤 (1983)
김종호 (2001)
김은진 (2004)
김소담 (2007)
정빛나 (2007)
김가혜 (2008)
박현주 (2009)
정혜윤 (2009)
최민애 (2009)
김리라 (2010)
박예진 (2010)
김지혜 (2011)
유혜원 (2012)
주민정 (2012)
차주영 (2012)
문경주 (2013)
박미광 (2013)
박신영 (2013)
오혜림 (2013)
정한나 (2013)
주윤경 (2013)
홍세린 (2013)

보건교육과

박영자 (1969)
장점숙 (1969)
이주순 (1973)
이선숙 (1974)
장은숙 (1974)
조남옥 (1974)
박인순 (1977)
임찬희 (1978)
홍기혜 (1991)
김수현 (2003)
최유림 (2007)
김유리 (2010)
김소연 (2011)
박슬미 (2012)
윤원정 (2013)
홍승희

국어교육과

민지선 (2010)
최예슬기 (2010)
이은진 (2012)
장혜린 (2012)
이세화 (2012)
김시인 (2013)
박미경 (1978)

법과대학

법학과

김정순 (1955)
김정자 (1956)
김혜자 (1959)
권성자 (1965)

노윤진 (1965)
유희숙 (1965)
차명희 (1966)
안정희 (1967)
이양자 (1967)
박현순 (1969)
최윤숙 (1969)
윤혜숙 (1970)
최양숙 (1970)
박관순 (1972)
최은숙 (1974)
김선욱 (1975)
조근배 (1977)
홍수경 (1977)
문미란 (1980)
이현혜 (1980)
이현혜 (1980)
김정순 (1981)
조경애 (1981)
김영미 (1983)
박미라 (1983)
박명애 (1986)
조중숙 (1986)
남윤희 (1987)
이노홍 (1992)
김숙형 (1993)
공지영 (1994)
최은영 (1994)
김태희 (1996)
최태은 (1998)
박현주 (1999)
최효진 (1999)
이지연 (2000)
김태희 (2001)
백소현 (2001)
신승희 (2001)
지영선 (2001)
김명은 (2002)
김지선 (2002)
강혜숙 (2003)
김영주 (2003)
손 완 (2003)
최문숙 (2003)
박정민 (2004)
유승하 (2004)
손한나 (2005)
송은지 (2006)
조경진 (2006)
최지유 (2006)
강지니 (2007)
손승우 (2007)
오지원 (2007)
강수연 (2008)
권용주 (2008)
김근영 (2008)
김양지 (2008)
김은채 (2008)
양정운 (2008)
오유진 (2008)
정 우 (2008)
차민영 (2008)
강주형 (2009)
김경민 (2009)
김안진 (2009)
노숙영 (2009)
노혜미 (2009)
박청아 (2009)
불 떵 (2009)
안지연 (2009)
이승은 (2009)
이옥실 (2009)
장민선 (2009)
최정임 (2009)
강수경 (2010)
국현정 (2010)
김지영 (2010)
김진경 (2010)
박소연 (2010)
박윤진 (2010)
유나영 (2010)
이지선 (2010)
김문영 (2011)
노은혜 (2011)
문서영 (2011)
신예경 (2011)
이송하 (2011)
이혜연 (2011)
이희숙 (2011)
임슬기 (2011)
장지혜 (2011)
차은영 (2011)
구자인 (2012)
김민재 (2012)
김민정 (2012)
김송현 (2012)
김주연 (2012)
박이현 (2012)
유지혜 (2012)
이유라 (2012)
정서희 (2012)
최상희 (2012)
최정인 (2012)
하지은 (2012)
한예리 (2012)
현지연 (2012)
감민지 (2013)
강선미 (2013)
권희진 (2013)
나현나 (2013)
문화경 (2013)
박정빈 (2013)
방보미 (2013)
백민영 (2013)
송 원 (2013)
신다정 (2013)
신주희 (2013)
윤정원 (2013)
이예슬 (2013)
이재림 (2013)
이준경 (2013)
정은지 (2013)
정하영 (2013)
지하나 (2013)
하희신 (2013)
황세원 (2013)
정영심

법학전문대학원
김문정 (2013)

경영대학
경영학과
김옥순 (1969)
이영애 (1969)
이영순 (1973)
정중자 (1974)
김영선 (1978)
임혜란 (1978)
문수정 (1984)
홍기연 (1985)
구성원 (1995)
허문정 (1998)
구효정 (2001)
조윤정 (2001)
최은실 (2002)
권건하 (2003)
권현경 (2003)
한정미 (2004)
김경선 (2005)
김현정 (2005)
신정원 (2006)
이진경 (2006)
김한미 (2007)
한현주 (2007)
박지수 (2008)
우은경 (2008)
조아영 (2008)
이정윤 (2009)
한은미 (2009)
강은지 (2010)
박은영 (2010)
권기주 (2011)
김윤영 (2011)
정지윤 (2011)
조주연 (2011)
기지영 (2012)
김소라 (2012)
김수진 (2012)
김지민 (2012)
류정현 (2012)
송수현 (2012)
한승조 (2012)
김효라 (2013)
성수인 (2013)
유정경 (2013)
이도인 (2013)
이미연 (2013)
정지연 (2013)
정해인 (2013)
최보원 (2013)
국제사무학과
소계숙 (1973)
임은식 (1981)
박지원 (1983)
김지혜 (1988)
박선희 (1991)
이진아 (2001)
김은정 (2002)
이희원 (2009)
김보배 (2010)
이유림 (2012)
원윤정 (2013)
정재연 (2013)

의과대학
의학과
박숙정 (1951)
조성매 (1953)
김순희 (1959)
이혜경 (1960)
차순자 (1960)
김복순 (1961)
이창학 (1961)
우복희 (1963)
이정식 (1963)
박정희 (1964)
이영우 (1964)
이현숙 (1964)
오양자 (1965)
오기근 (1968)
이규현 (1968)
이명숙 (1970)
주문희 (1970)
지현숙 (1970)
김혜진 (1971)
김화숙 (1971)
우경숙 (1972)
이영주 (1972)
서현숙 (1973)
유경화 (1974)
최금자 (1974)
박경순 (1975)
배순희 (1975)
이경자 (1975)
이덕용 (1975)
이선자 (1975)
이은염 (1975)
정순미 (1975)
조종남 (1975)
최창혁 (1975)
장애숙 (1976)
황인령 (1976)
김경한 (1977)
김정혜 (1977)
김은경 (1978)
오구미 (1978)
오혜숙 (1978)
이진숙 (1978)
최신영 (1980)
백애란 (1981)
현영화 (1981)
임 선 (1982)
정호진 (1983)
김효신 (1984)
청은숙 (1984)
박경희 (1985)
최은진 (1988)
유진아 (1993)
문상애 (1995)
배기선 (1999)
태경현 (2005)
서유진 (2006)
양혜린 (2007)
장수진 (2009)

의학전문대학원
조주연 (2012)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
최옥희 (1959)
전응조 (1960)
남상옥 (1962)
김계숙 (1970)
김진향 (1973)
이미경 (1974)
조순옥 (1974)
유병국 (1975)
이재온 (1975)
정경숙 (1975)
한상애 (1975)
김혜영 (1976)
김선애 (1980)
이희숙 (1981)
윤희정 (1990)
김윤주 (1995)
신수진 (1996)
최혜은 (1998)
박진화 (1999)
양은주 (2006)
김수영 (2009)
안다영 (2011)
황혜영 (2011)
김슬기 (2013)
신은주 (2013)
양지연 (2013)
배경의

약학대학
약학과
문은선 (1949)
이항구 (1950)
장현숙 (1950)
김경원 (1951)
신경희 (1951)
전예실 (1951)
최귀패 (1951)
김재운 (1955)
배복희 (1955)
오춘환 (1955)
최음전 (1955)
박찬옥 (1956)
김정순 (1957)
김필한 (1957)
이무경 (1957)
이정경 (1957)
이정란 (1957)
정영주 (1957)
한영숙 (1957)
허인전 (1957)
홍정옥 (1957)
김진숙 (1958)
유문자 (1958)
문예자 (1958)
문 희 (1959)
민병옥 (1959)
박정애 (1959)
신가균 (1959)
윤혜숙 (1959)
이옥순 (1959)
황동수 (1959)
강보길 (1960)
고순환 (1960)
김보근 (1960)
김선애 (1960)
김용호 (1960)
김형례 (1960)
민정인 (1960)
박난서 (1960)
변양자 (1960)
이주화 (1960)
서임열 (1960)
이옥순 (1960)
이종섭 (1960)
장현숙 (1960)
정휘숙 (1960)
최혜경 (1960)
한영숙 (1960)
고경희 (1961)
고화영 (1961)
김덕희 (1961)
김옥녀 (1961)
김춘숙 (1961)
윤용봉 (1961)
이남우 (1961)
정예경 (1961)
허순영 (1961)
강혜식 (1962)
김순영 (1962)
김영순 (1962)
송미래 (1962)
정덕명 (1962)
조수남 (1962)
김기방 (1963)
차영희 (1963)
홍강수 (1963)

김송윤 (1964)
김정경 (1964)
백정자 (1964)
정태언 (1964)
홍경자 (1964)
정영자 (1965)
김명자 (1966)
박해영 (1966)
이강희 (1966)
강원자 (1967)
김영숙 (1967)
김진애 (1967)
석귀덕 (1967)
김경자 (1968)
김영대 (1968)
김영애 (1968)
김초원 (1968)
박순례 (1968)
오세종 (1968)
김덕길 (1969)
김일희 (1969)
박성숙 (1969)
정인숙 (1969)
박노신 (1970)
박순희 (1970)
전명숙 (1970)
정세정 (1970)
박정아 (1971)
고명순 (1972)
정준순 (1972)
신영숙 (1973)
위성숙 (1973)
정용희 (1975)
박민희 (1977)
박민희 (1977)
민명수 (1979)
이미애 (1979)
최길자 (1979)
최순경 (1981)
안소영 (1983)
지선옥 (1983)
김준희 (1984)
서성연 (1995)
조민정 (2000)
권진현 (2001)
현명화 (2006)
김지혜 (2007)
윤소혜 (2007)
정재은 (2009)
곽명계 (2010)
서희원 (2010)
이나라 (2010)
박희은 (2011)
정다운 (2011)
조소영 (2011)
김지혜 (2012)
이지연 (2013)

제약학과

오용순 (1975)
구진숙 (1976)
김정옥 (1976)
안혜영 (1976)
이길자 (1976)
김영미 (1979)
김혜연 (1980)
이주영 (1987)
황경수 (1988)
이은주 (1995)
임은형 (1996)
서은영 (1999)
양유림 (2000)
박혜경 (2006)
서진주 (2006)
박현정 (2008)

생활환경대학

가사, 가정과

이신덕 (1953)
이병림 (1955)
정진자 (1957)
김옥진 (1958)
박종오 (1958)
김숙자 (1959)
이근희 (1959)
윤영자 (1960)
전은수 (1960)
구자숙 (1961)
박순교 (1961)
계명혜 (1963)
박혜경 (1963)
이영예 (1963)
김길수 (1964)
김윤자 (1964)
예경혜 (1964)
윤송자 (1964)
박정자A (1965)
오메성 (1966)
윤춘자 (1966)
조규화 (1966)
박순자 (1967)
장영희 (1967)
최민자 (1967)
김광숙 (1968)
김대순 (1968)
김성림 (1968)
문옥조 (1968)
배계현 (1968)
오덕영 (1968)
유승희 (1968)
유춘미 (1968)
이경일 (1968)
임혜숙 (1968)
김현숙 (1973)
이혜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최성숙 (1973)
김선자 (1974)
신순자 (1974)
서태선 (1975)
임정희 (1979)
지영서 (1980)
김선녀 (1988)
한세영 (1990)
김유리 (1995)
김혜경 (2002)
이두령 (2002)
이윤경 (2003)
서진선 (2004)
백주혜 (2007)
이규민 (2007)
하우경 (2007)
이민정 (2010)
이수정 (2011)
하정민 (2011)
안주희 (2012)
고복희 (2013)

의류직물학과

박윤정 (1955)
이정임 (1971)
이미자 (1974)
이숙희 (1979)
최인순 (1979)
최비숙 (1980)
홍증옥 (1981)
이문순 (1982)
김소현 (1983)
유정희 (1983)
이정림 (1984)
신경섭 (1985)
진수성 (1992)
이선영 (2002)
김자원 (2004)
조인희 (2008)
김나경 (2012)
김민선 (2013)
김진주 (2013)

식품영양학과

박일화 (1949)
구소원 (1969)
장선재 (1969)
우정애 (1970)
전정숙 (1971)
박경임 (1973)
이경애 (1982)
정조인 (1983)
송향희 (1987)
강준영 (1996)
김정은 (2006)
이형림 (2008)
김경아 (2011)
이승은 (2011)
김혜린 (2012)
심송옥 (2013)
서자은 (2012)
장지은 (2012)
권다은 (2013)
권보경 (2013)

국제학부

국제학과

최수안 (2006)
이지현 (2009)
박보미 (2010)
민혜진 (2011)
유미루 (2012)
제정민 (2012)
김이수 (2012)

대학원

하영수 (1968)
채문경 (1974)
심홍임 (1978)
이정화 (1989)
권정원 (2000)
문현실 (2002)
곽경희 (2003)
안보연 (2005)
한후영 (2006)
김가율 (2007)
성경희 (2008)
오선희 (2008)
이지은 (2008)
여은실 (2009)
김여경 (2010)
박수경 (2010)
안영순 (2012)
이혜진 (2012)
제갈선 (2012)
Jiang Mengfan (2013)
김영은 (2013)
김영자 (2013)
안연용 (2013)
천호정 (2013)
황은경 (2013)
김경미
김정미
송수진
이경선
이주미
이화진

국제대학원

박영금 (2003)

교육대학원

임미성 (1987)
한진아 (2007)
공정윤 (2009)
오하나 (2009)
장혜은 (2010)
홍선경 (2010)
고유미 (2011)
심차나 (2011)
김루비 (2012)
김혜성 (2012)
박향숙 (2012)
안영주 (2012)
유자영 (2012)
윤동하 (2012)
이안나 (2012)
최지혜 (2012)
김혜진 (2013)
송정은 (2013)
유혜진 (2013)
이정은 (2013)
함호선 (2013)
허덕향 (2013)
김유경

사회복지대학원

선지숙 (2009)
임혜은 (2013)

정책과학대학원

양영민 (1999)
오유경 (2005)
최윤정 (2007)
최영은 (2008)
남화정 (2010)
이지연 (2010)

경영전문대학원

김혜현 (2013)

신학대학원

박만자 (2004)
윤은주 (2008)

통번역대학원

한정선 (2005)
성효정 (2009)
김경진 (2010)
은지명 (2010)
한수희 (2010)
박시은 (2012)

디자인대학원

윤미연 (2006)
최수현 (2011)

임상보건대학원

이경진 (2010)
손은주 (2012)

실용음악대학원

김은경 (2005)
김은경 (2005)

학과, 년도 미상

구경자
구정숙
권정아
김 연
김경희
김광자
김규리
김다애
김복순
김서연
김성희
김수희
김순년
김양식
김영순
김윤희
김은경
김 정
김정수
김정은
김정자
김정혜
김종옥
김주영
김지나
김찬미
김현자
김형경
김혜린
김혜영
류승희
문경은
문정숙
박 실
박경애
박경하
박미희 (2013)
박보연
박복자
박숙자
박영자
박인숙
박인숙
박인자
박지윤
배유진
백명진
백형자
서예시
성미영
손소정
송성은
신경자
신수연
신은영
신인화
신정희
심희옥
안유리
양수정
양지혜
오수미
오옥환
유명숙
유명자
유연희
유은옥
유지윤
윤혜원
윤희중
이 영 (1977)
이기영
이대동창
이미정 (1994)
이보배
이소영
이수자

이수진
이 숙
이숙영
이승아
이애경
이연지
이은정
이재숙
이재화
이정자
이종민
이한나
이현수
이호성
임명숙
임미자
임빙희
임자영
임희숙
전경숙
전윤식
전화순
선효경
정보경
정순희
성영숙
정윤정
정재숙
정한숙
조명옥
조윤숙
조은희
조현숙
채문숙
최금순
최선희
최윤진
최종숙
최진자
최태순
최현옥
최현진
최혜옥
한계석
한 솔
한수현
한정희
허은주
홍경숙
홍순경
sophie
기타불명
(106명)

이징환(유교 55)
600,000원
김준희(영문 60)
500,000원
강유순(약학 69)
312,863원
이(전)황현(의학 79)
317,067원
이미애(국제사무 89)
100,000원

국내지회

대구
600,000원
순천
600,000원
김연자 (가정 59)
강조례 (가정 63)
조정자 (국문 63)
조영숙 (화학 67)
김경인 (동양 74)
홍선란 (교육 75)
유종희 (사학 75)
고명선 (영문 76)
박금희 (물리 76)
최영자 (사회 77)
김명석 (작곡 79)
나연희 (경영 79)
황경숙 (체육 79)
서혜석 (영문 81)
유숙영 (법학 85)
윤지연 (간호 85)
고선영 (외교 86)
최정순 (신방 87)
신경화 (조소 88)
김수진 (경영 91)
전주
600,000원
차인자 (영문 50)
유재신 (생명 59)
이순례 (수학 59)
김영원 (피아노 61)
국혜원 (사학 62)
이주자 (사생 67)
안명옥 (심리 70)
이전숙 (의직 70)
기영석 (국제사무 73)
손숙희 (작곡 73)
이현실 (심리 73)
오경안 (법학 75)
유순금 (법학 77)
정혜숙 (영문 77)
유수옥 (특교 77)
성현수 (영문 82)
최희윤 (불문 85)
정순임 (식영 85)
김영란 (서양 85)
나수영 (의직 86)
울산
300,000원

해외지회

알라스카
210,000원
아틀란타
(1,000불)
1,005,2847원
성정순 (체육 49)
정제니 (영문 64)
이인옥 (가관 85)
전원숙 (국문 59)
홍정자 (의학 66)
김정숙 (사학 65)
강혜정 (신방 65)
김순희 (법학 66)
김혜경 (영문 65)
조성숙 (가정 64)
김정희 (약학 79)
한인자 (사생 68)
김경원 (가관 81)
최정원 (식영 85)
김명은 (조소 65)
이미애 (성악 85)
장윤심 (식영 70)
계원옥 (수학 69)
김정자 (신방 66)
이복희 (섬예 75)
이수완 (무용 68)
최복희 (성악 73)
김원숙 (생미 68)
장석란 (서양 68)
정문자 (의학 66)
어영희 (사학 65)
조수헌 (수학 76)
김난경 (국문 59)
장명옥 (영문 81)
박영애 (서양 70)
조윤정 (약학 64)
이종연 (약학 68)
조미영 (보교 79)
신시내티
393,668원
강순명 (약학 71)
권숙자 (의학 67)
김영채 (영문 59)
김진희 (기악 68)
김혜선 (외교 69)
도미용 (약학 56)
배영자 (신방 69)
배미애 (가정 68)
이현숙 (간호 69)
지민정 (사회 85)
하현숙 (법학 71)
황은신 (생미 70)
클리블랜드
400,000원
북텍사스
300,000원
덴버
210,226원
올란도
(500불) 555,203원
내쉬빌
(200불) 206,470원
뉴욕
1,107,000원
오레곤
(500불) 538,811원
세인트루이스
(338불) 355,980원
황선임 (사대 59)
최경선 (영문 61)
한정자 (교육 63)
이수자 (가정 63)
송경자 (약대 65)
최길자 (화학 65)
정선주 (성악 68)
양혜자 (심리 74)
김혜영 (간호 79)
최혜영 (생미 86)
선재숙 (의대 72)
김평자 (영문 63)
에드몬튼
203,988원
몬트리올
288,967원
김순일
박복길
박정자
공복자
김광주
이수형
민경희
손봉희
한현숙
김동원
성형숙
이채화
백희준
김명원
멜버른
92,657원
오타와
297,915원
토론토
(500불) 488,335원
뉴질랜드
345,144원
아르헨티나
210,000원
정순교 (교육 64)
윤행자 (생명 64)
정명자 (국문 64)
최경인 (물리 68)
장성희 (보교 68)
원명자 (과교 66)
윤은희 (영문 78)
브라질
500,000원
이태리
210,000원
홍콩
3,047,750원
HKD5000불
방혜자 (교육 66)
이명희 (무용 68)
정도경 (사복 81)
장은명 (영문 69입)
임미도 (관현악 81)
HKD200불
임혜경 (신방 79)
이수영 (영교 88)
허은영 (중문 88)
문은명 (조소 89)
한유미 (보교 90)
정경화 (관현악 90)
한정화 (섬예 94)
문지영 (전산 94)
이재명 (신방 98)
송수희 (신방 98)
홍혜연 (불문 99)
방지선 (국문 08)
김수지 (정외 99)
조혜지 (정외 98)
일본
390,000원
사사끼혜미 (문과 42)
김정숙 (체육 50)
김신희 (의학 51)
강연숙 (가정 53)
김명화 (음대 63)
유정일 (가정 63)
김영원 (문정 67)
구덕자 (의학 69)
정태영 (생미 69)
고정희 (장미 74)
정태경 (사학 75)
김미혜 (장미 82)
김덕희 (도예 96)
싱가포르
900,000원 2013년
싱가포르
859,600원 2014년
북경
400,000원

축하합니다

졸업연도순 게재

이영희(영문54)동창 일본의 여성문화상수상

구랍 10일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영희 전 한국문학인회장이 한일 고대 관계사의 진실을 밝혀온 공로를 기려 일본의 제 17회 여성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일본에서 문화창조자로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장상(수학62)동창 WCC공동회장 및 아시아지역 의장으로 선출

2013년 11월 4일 장상 전 이대 총장이 WCC 신임 공동회장이자에 아시아지역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회장은 대륙별로 1명씩 배정되며 우리나라는 두 번째이자 여성으로서는 최초이다.

이경자(사회생활62)동창 미국 매릴랜드 주지사 상수상

글로벌어린이재단(GCF) 워싱턴 지부를 이끌고 미동부지역 회장을 역임한 이경자 동창이 워싱턴 지역사회와 한국 등 세계 결식아동을 위해 기금 모금을 전달하고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매릴랜드 주지사 상을 수상하였다.

추성인(사학67)동창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우수의원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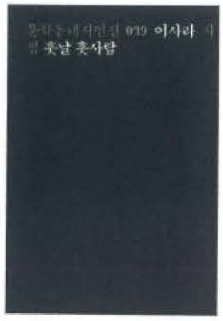
경기도 시의회 복지산업위원장을 역임한 추성인 용인시 시의원이 2013년 9월 25일 경기도 경기도협의회와 경기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시.군의회 의정발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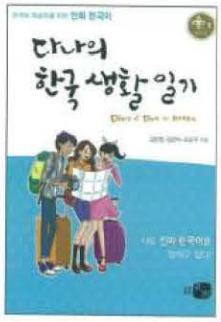
김숙현(영문67)동창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1등상수상

전 코리아헤럴드 해외부장, 한세대 교수인 김숙현 K-Story 대표가 역사문화 특별지구로 선포된 성북동 명소에 대한 영문 문화콘텐츠 개발로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다.

동창이 펴낸 새책

졸업 연도 순 게재





임인진(국문 58)

임인진 지음 / 시와 수필

황새를 기다리며

'바람실린 꽃잎 되어, 산비둘기, 비우고도 넉넉한 산이어라, 허수아비의 눈물, 아우슈비츠를 떠올리며' 등 시와 수필을 함께 감상하면서 저자의 삶의 여정과 시적 감성을 엿볼 수 있다.

허미자(국문 58)

허미자 지음/ 보고사

나의 스승 어머니

조선시대 사대부가 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의 가르침과 사랑에 대하여 쓴 글인 행장이나 유사를 자료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켰으며, 그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탄생하였는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사라(국문 75)

이사라 지음 / 문학동네

훗날 훗사람

시인의 여섯번째 시집으로 1981년 '문학사상' 에 '히브리인의 마을 앞에서'를 발표하여 문단생활을 해온 지 32년째로 '가족박물관' 을 펴낸 지 5년 만에 들고 나온 새 시집이다. 총 67편의 시가 3부로 나뉘어 담겨 있으며 정갈함과 애잔함이 묻어있다.

신아연(철학 87)

신아연 지음 / 당대출판사

글 쓰는 여자, 밥 짓는 여자

온라인 칼럼 전문 사이트 자유칼럽그룹에 공감이라는 타이틀로 쓴 77편의 글을 엮은 책으로 칼럼리스트인 저자의 호주 이민생활을 담백한 언어로 만날 수 있다. 공감의 언어, 나눔과 소통의 언어가 돋보이며 누군가에게 자기 발견과 치유의 기회가 될 것이다.

고은정(국문 11), 김단아(한국학 13), 조은주(불문 11)

고은정, 김단아, 조은주 지음 최지영 감수/ 도서출판 하우

다나의 한국 생활 일기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만화 한국어 책으로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초 ·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쓴 책이다. 재미있는 한국 생활 이야기가 펼쳐지는 15개의 에피소드, 생생한 한국 문화를 담은 15개의 문화 팁, 유용한 관용 표현과 속담을 소개하는 45개의 언어 포인트, 400여개의 어휘 각주 및 색인을 제공한다.

이대 총동창회 정보통신부 신설 기념

제1회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

2013년 제16대 총동창회가 출범하면서 동창들의 원활한 상호소통의 창구로서
'정보통신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또한 앞으로 동창들 사이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시상합니다.

글 주제 / '이화'와 관련한 모든 일, 추억, 느낌, 풍경, 사람, 일상 등

부문 / 시와 수필

원고 장수/ 시는 분량 없음. 수필은 200자 원고지 기준 7매~10매
(A4용지 10호 기준 1장~1장 반 정도)

글 보낼 곳 / 이화인닷넷 http://www.ewhain.net 의 '이화사랑 글짓기 대회' 난.
혹은 이메일 Ewhaalum@ewha.ac.kr, 팩스 02-393-9141.

응모 자격/ 이화동창 및 가족

응모 기간/ 2014년 4월 1일~8일

발표 및 시상 / 2014년 6월 중

시상내역 / 총동창회장상(시, 수필 각 1편), 이화사랑 상(시, 수필 각 3편),
이화행복 상(시, 수필 각 5편), 이화우정 상(시, 수필 각 10편) 등 총 50여 편 시상 예정

기타 / 응모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시상 작품은 기념문집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문의 / 총동창회 사무실 T. 02-3277-3386, 3387
이화인닷넷 http://www.ewhain.net

since 1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를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관리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플라자 7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6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S. Noble

Medici Club

문화예술 메디치 클럽

"그 옛날 이태리 피렌체의 메디치가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서울의 이화의 교정에서 동창들 및 지인들과 문화 예술 강좌를 들으시고
젊은 예술가들도 후원하는 메디치클럽회원이 되세요."

✸

강좌 내용

오페라 뮤지컬및 음악감상
미술 및건축강의 ,발레 감상및 갤러리와 문화탐방

✸

강좌 기간_ 3월11일~6월17일
요일/시간_ 매주 화요일 10:30 ~ 12:30
장소_ 이대 평생교육원 (이대삼성 문화관)
문의_ 02.3277.3111